


BUSAN HARBIN KANAZAWA

동아시아 국제레지던시 교류사업
东亚国际培训交流项目
東アジアの国際レジデンスー交流事業



CONTENTS

I. 동아시아 국제레지던시 교류사업

개요

기획후기 김이선

II. 참여 작가

엄정원

최석운

변대용

송성진

조정현

니시지마 나츠미

카네야스 히로시

III. 교류 후기

权伍松 Quan Wusong (작가, 흑룡강대학교 교수)

동아시아 국제레지던시 교류사업

东亚国际培训交流项目

東アジアの国際レジデンシー交流事業





Section 1

동아시아 국제레지던시 교류사업

Interchange Project of the
International Residency of East Asia





사업개요

사업목적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한·중·일 3개국

도시의 예술가 교류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사업내용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예술가 초청 및 창작 교류활동 지원

교류도시 한국(부산), 중국(하얼빈), 일본(가나자와)

사업기간 2018. 3.~12.

事業目的 東アジア文化都市交流行事の一環として韓・中・日3か国

都市の芸術家同士の交流機会提供及び力量強化

事業内容 2018 東アジア文化都市芸術家招待及び創作交流活動支援

韓国(釜山)、中国(Harbin)、日本(金沢)

事業期間 2018. 3. ~ 12.

項目目的 东亚文化城市交流活动之一 · 给韩·中·日三国

城市的艺术家提供交流机会并强化能力

項目内容 邀请2018东亚文化城市艺术家及支援创作交流活动

交流城市 韩国(釜山) · 中国(哈尔滨) · 日本(金泽)

項目期间 2018. 3. ~ 12.



주요 추진일정

3월	기본 사업계획 수립
4월	일본 교류도시 협업기관 섭외
5월	일본 교류기관 선정(가나자와 미술공예 대학)
6월	중국 교류기관 섭외
7월	부산 방문작가 선정 - 가나자와: 2명(니시지마 나츠미, 카네야스 히로시)
8월	가나자와 방문작가 선정 - 부산: 1명(엄정원) - 중국 교류기관 선정(하얼빈 사범대학교 미술대학) - 교류 컨셉 도출(시각예술 중심) 및 협업 프로그램 구성
9월	하얼빈 방문작가 선정 - 부산: 1개팀(4명 / 최석운, 송성진, 변대용, 조정현) 3개국 레지던시 교류 활동 추진 - 부산작가팀 하얼빈 방문(9. 18. ~ 23) - 가나자와 작가 부산 방문(9. 1. ~ 30)
10월	3개국 레지던시 교류 활동 추진 - 부산작가 가나자와 방문(10. 1. ~ 31) - 가나자와 작가 부산 방문(10. 2. ~ 31)
11월~12월	사업성과 공유 및 결과보고

기획후기

기획자 김이선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3개국 도시(한국 부산, 중국 하얼빈, 일본 가나자와)의 예술가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지역 예술가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해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중·일 3국간 문화다양성 존중의 가치 아래 '동아시아의 인식, 문화 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2년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추진 이 합의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동아시아문화 도시」 선정 공모를 통해 부산광역시가 선정(2017. 6.)되어 진행된 사업의 일환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예술가 초청 및 창작 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이 사업은 중국 하얼빈에 부산 작가들(4명)을 파견하여 창작 활동 발표와 현지작가들과의 교류와 도시탐방을 하였고, 일본 가나자와에 부산작가(1명)가 그리고 가나자와의 작가(2명)들이 부산 흥티아트센터에 입주하여 창작활동과 함께 교류활동을 하고 오픈스튜디오 형식으로 그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교류진행 초기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나자와대학의 코지 나카세 Koji Nakase 교수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나자와 Toiyamachi 스튜디오를 활용하며 가나자와와의 교류 활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늦었지만 코지 나카세 Koji Nakase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중국 하얼빈과의 교류진행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 교류사업의 진행은 두 도시의 레지던스 교류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부산문화재단과 중국에서도 지명도 있는 하얼빈의 북대황판화원의 협력작업으로 부산작가가 하얼빈 북대황판화원으로 이동하고 또 하얼빈 작가가 부산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상대도시의 작업공간에서 체류하며 작업하고 현지작가들과 교류하는 내용의 프로

램이었다. 중국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이 프로그램 진행은 교류협약을 코앞에 두고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상부의 지시라서 담당자는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교류의 진행을 맡은 기획자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이후 부산문화재단으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단기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겠냐는 것이다.

그동안 나의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마딕 아트프로젝트 기획으로 실�크로드, 몽골, 네팔, 중국 등지를 예술가들과 다니며 이동교류작업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그 내용을 알고 제안을 한 것 이라 생각했다.

서로 다른 도시의 교류는 매력적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너무도 촉박했기에 그 지역출신의 작가와 빠른 협의작업을 위하여 북경으로 날아갔다. 처음으로 익숙하고 친근한 북경을 1박 3일의 바쁘고 빠듯한 일정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프로그램기획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 북경에서 직접 하얼빈 현지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이 하얼빈 사범대학이었다. 교류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근히 알려주었고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답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작가섭외가 끝나고 진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몇 년간 쉴 사이 없이 국내외에서 전시기획 및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난겨울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문화행사였던 '파이어아트페스타2018'을 기획하며 많은 에너지소모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쇼크가 찾아왔고 병원에 장기 간 입원하게 된 것이다. 급한 상황을 넘기고 병원에 누워 이 프로그램의 진행여부에 관하여 깊

이 생각해보았다. 이동하고 움직이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에 작가들은 매우 흥미와 기대를 가득 안고 있었기에 현지에 큐레이터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대신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중국과 한국의 작가 한분씩을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의 아니게 기획자를 대신하여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맡아 주신 최석운선생님과 북경의 조우치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중국 하얼빈과의 교류작업은 오랜 기간 신뢰와 우정을 가지고 있는 중국작가 조우치Zhou Qi선생님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겨우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하얼빈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하얼빈사범대학미술학원 孟宪德 Meng Xian-de 부원장님과 平平凡 Ping Pingfan 부교수님 그리고 부산작가들의 체류기간동안 함께 해주셨던 흑룡강성미술관 부관장 张洪训ZhangHongxun, 작가 周祁 Zhou Qi, 작가 文光锡 Wen Guangxi 님께도 감사드린다.

하얼빈은 아직 예술교류의 경험이 많지 않고 더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교류는 아직 활발하지 않았기에 계획했던 작가교류는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부산작가들의 활동모습과 창작활동을 발표해나가는 것을 보고 상당한 충격과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사실 흑룡강성의 뛰어난 작가들은 이미 북경이나 상해 등 큰 도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미술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다. 현지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대체로 미술교육을 위한 작가이거나 판화, 구상작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으로써 하얼빈도 예술교류의 필요성을 깊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얼빈의 송화강은 만주벌판을 지나 동해로 흘러내려 온다. 우리나라와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일본 역시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가까운 나라이다. 요란하지 않은 이 작은

예술교류가 동질성과 이질성을 가지고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동아시아문화교류가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 지길 바란다. 소소하게 시작된 이 교류가 씨앗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폭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신이 그 그늘 아래 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노인들이 나무를 심을 때 한 사회는 위대하게 성장 한다’는 그리스 속담이 있다. 작지만 아름다운 나무 하나가 부산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으로 작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이선 Kim Yisun

시각예술기획자 Art Curator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문화축제 [FIRE ART FESTA 2018]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주최
- 2017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기념「Platform of the peace」 /주미안마 대한민국대사관 주최
- 2015 한,중현대미술교류「중심축_경계를 넘어 中心軸_超越境界」(북경, 대전)
- 2012 노마딕 아트 레지던시『Nomadic Time and Space-Nepal』
- 2010 노마딕 아트 레지던시「Time & Space」 (몽골,제주) /외교통상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몽골예술위원회 주최
- 2018 『Fire Art Festa2018』The PyeongChang 2018 Cultural Olympiad / Host by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017 Korea-Myanmar new wave exchange art exhibxtion「Platform of the peace」/ Host by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yanmar
- 2015 China and Korea's Contemporary Art Exchange Exhibition (Deajeon Korea, Beijing China)
- 2012 Nomadic Art Residency『Nomadic Time and Space-Nepal』
- 2010 Nomadic Art Residency『Nomadic Time and Space-Mogol』/ Host by Korea Arts Council & MOFAT

计划后感

本活动作为釜山广域市“东亚文化之都”交流活动的一环，旨在为三国三城（韩国釜山、中国哈尔滨、日本金泽）的艺术家提供交流机会，加强釜山地区艺术家的国际力量，并通过与东亚海外机构建立合作体系来构建持续的关系网。

“东亚文化之都”项目在尊重中日韩三国间文化多样性的前提下，为了贯彻“东亚意识、文化交融、彼此欣赏”的精神而在2012年的中日韩文化部长会议上就“东亚文化之都”的评选及推进事宜达成一致。通过由文化体育观光部主办的“2018年东亚文化之都”征集评选活动，最终釜山市入选（2017年6月）。

2018年“东亚文化之都”的入选城市为韩国（釜山）、中国（哈尔滨）、日本（金泽）。

本项目旨在邀请“东亚文化之都”的艺术家，为其提供创作交流活动支援。项目已向中国哈尔滨派遣了4名釜山作家，开展了创作活动发表、与当地作家交流，以及城市探访等活动，同时，1名釜山作家到日本金泽市，2名金泽作家入驻Hongti艺术中心，开展创作活动及交流活动，并以开放式工作室的形式发布作品。

虽然在交流初期经历了一些困难，但在金泽大学Koji Nakase教授的积极帮助下而运用了Toiyamachi工作室，顺利与金泽开展了交流活动。虽然为时已晚，但我依然想向Koji Nakase教授致敬并表示谢意。

然而，在与中国哈尔滨的交流方面却经历了很多困难。本交流项目从两座城市的Residence交流项目开始。作为釜山文化财团与在中国当地也有着较高知名度的哈尔滨北大荒版画院的合作项目，项目以釜山的作家前往哈尔滨北大荒版画院，哈尔滨的作家前往釜山，双方在对方城市的作业空间内创作并与当地作家交流的方式进行。但由于中国复杂而又难以理解的政治、社会状况，在交流协议即将签订之际，我收到了有关项目进行事宜的单方面通知，称项目将延期到明年，负责人称这是上级的指示，自己也没有办法。作为负责这一交流活动的策划人，我当时的处境相当尴尬。

此后，我从釜山文化财团收到了新的提案，提案中询问能否策划一下短期项目。

之前我通过“流浪艺术项目”，与艺术家们来往于丝绸之路、蒙古、尼泊尔、中国等地，开展移动交流工作，我认为这是文化财团了解了这些内容后提出的提案。

在不同城市之间进行交流是一件很吸引人的事情。能够感受并接受那些在我生活的地方完全感受不到的东西。虽然准备时间很短暂，但我还是欣然接受了这个提案。由于时间太紧，我就直接飞往北京，与当地的作家迅速协商。在熟悉而又亲切的北京结束了三天一夜的繁忙而又紧凑的行程后，我回国快速进行活动策划。

我在北京找到了可以直接在哈尔滨当地进行交流的地方，那就是哈尔滨师范大学。对方如实地告诉了我交流所需的事项，在听到活动会顺利进行的回答后，我安心地回到了韩国。

但在我与作家结束协商后，觉得在活动的进行上不会有太大问题的时候，却遇到了很大的不幸。

几年来，我一直不停地在国内外进行展览策划和项目活动，还在去年冬天策划了平昌冬奥会的官方文化活动“Fire Art Festa 2018”，这导致我消耗过多精力，产生了很大压力，最终导致休克，然后到医院住院接受长期治疗。

在度过紧急状况后，我躺在医院里，认真想了一下这个项目是否还要进行。

对于移动进行的、充满魅力的项目活动，作家们都怀着非常大的兴趣和期待，所以策展人虽然不能一起去现场，但还是决定在中国和韩国各选出一位能够充分发挥自身作用的作家来进行这个项目。

在此向代替策划人不辞辛劳的崔硕云老师和从北京调来指挥一切的周琦老师致敬并表示感谢。

多亏了长期给予信任和友情的中国作家周琦老师的全方位帮助，与中国哈尔滨之间的交流工作才得以进行。我再次向热爱韩国的周琦老师敬礼致谢。

同时我还要感谢使哈尔滨交流得以进行的哈尔滨大学的孟宪德副院长，平平凡副教授，以及在釜山作家停留期间为其提供帮助的张洪训黑龙江省美术馆

副馆长，周祁，文光锡。不过与哈尔滨的作家交流活动并未能如愿进行。

哈尔滨在艺术交流方面经验还不多，加上我们所认为的现代美术交流活动也不是很活跃，因此，原本计划的作家交流并不顺利，但哈尔滨作家们看到釜山作家的创作场景，以及在圆桌活动进行时发布自己创作活动的样子后，受到了很大的震撼并表现出了极大和兴趣。事实上，黑龙江省的杰出作家们已经在北京或上海等大城市中创作了很多我们所熟知的现代美术作品，非常活跃。活跃在当地的作家大都是为美术教育作家或者进行版画、具象美术等的作家。但是，中国正在经历着巨大的变化，哈尔滨也感受到了艺术交流的必要性。

哈尔滨的松花江经过东北平原流向东海。这是一个与我们接壤的地区。而日本也是夹在同一个海域的国家。希望这次会议能够成为共同理解并分享同质性和异质性，实现多种东亚文化交流飞跃的契机。希望这小小的交流能够成为种子，产生各种视觉空间，使我们能够审视彼此。希望通过如此多样的文化艺术交流活动，能够成为釜山文化艺术飞跃机会的小小踏板。

企画のレビュー

本事業は、釜山広域市東アジア文化都市交流行事の一環として、3カ国の都市(韓国・釜山、中国・ハルビン、日本・金沢)の芸術家による交流の機会を提供し、釜山地域の芸術家の国際的能力を強化し、東アジアの海外機関との協力体系の構築を通じて、持続的なネットワークの構築を目的に行われた。

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は、日中韓3国間の文化の多様性を尊重するという価値の下、「東アジアの意識、文化交流と融合、相手文化の理解」の精神を实践しようとの趣旨で、2012年の日中韓文化大臣会合において「東アジア文化都市」の選定・推進が合意され、文化体育観光部主管「2018年東アジア文化都市」選定公募を通じて釜山広域市が選ばれ(2017年6月)、進められた事業の一環である。

2018年東アジア文化都市には、韓国(釜山)、中国(ハルビン)、日本(金沢)が選ばれた。

東アジア文化都市の芸術家を招待し、創作交流活動を支援しようとする趣旨の本事業は、中国・ハルビンに釜山の芸術家(4人)を派遣して創作活動発表と現地の芸術家との交流及び都市の視察を行い、日本・金沢に釜山の芸術家(1人)が、そして金沢の芸術家(2人)が釜山・ホンティアートセンターに入居して、創作活動と交流活動を共にやり、オープンスタジオ形式で成果物を発表した。

交流実施の初期に若干の課題があったが、金沢美術工芸大学の中瀬康志先生の積極的なご支援により、問屋まちスタジオを活用して金沢との交流活動は円滑に行われた。遅ればせながら、中瀬康志先生に深く尊敬と感謝のご挨拶をお伝えしたい。しかし、中国・ハルビンとの交流の実施には、相当な困難が多々あった。本交流事業の実施は、両都市のレジデンス交流事業として始まった。釜山文化財団と中国で

も知名度のあるハルビンの北大荒版画院との協力作業により、釜山の芸術家がハルビン・北大荒版画院に赴き、またハルビンの芸術家が釜山に赴いて一定期間相手都市の作業スペースに滞在しながら創作活動を行い、現地の芸術家と交流する内容のプログラムであった。ところが、中国の複雑かつ理解しがたい政治・社会的状況により、本プログラムの実施を交流協約を目の前に控えて来年に延期するという一方的な通知を受け取った。上部の指示であり、担当者は仕方がないという内容であった。本交流の実施を担当する企画者として、相当な戸惑いを覚える状況であった。

その後、釜山文化財団は新しい提案を受け取った。短期移動プログラムを企画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というものであった。

これまで、私はノーマディック・アートプロジェクトとしてシルクロード、モンゴル、ネパール、中国等を、芸術家と一緒に巡りながら移動交流作業を行ってきたので、文化財団がその内容を知って提案をしてきたものだと思った。

互いに異なる都市の交流は魅力的である。自分が暮らしている場所では到底感じることをできないものを感じ、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短い準備期間しか残され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快くその提案を受け入れた。実施できる期間があまりにも切迫していたので、その地域出身の芸術家と早急に協議するために北京に飛んだ。初めて、慣れ親しんだ北京を1泊3日の慌ただしくぎりぎりの日程で巡るという出張を終えて戻り、プログラムの企画を速いスピードで行った。

北京から直接ハルビン現地にて交流できる所を探し、そこがハルビン師範大学であった。交流に必要な諸事項を順を追って説明し、大きな問題もなく実施でき

るだろうという回答を貰って、安心して戻ってきたのである。

芸術家のオファーも終えて実施に大きな無理がないと思われたとき、私に大きな不幸が訪れた。

数年間休む間もなく国内外で展示企画及びプロジェクトを実施し、前回の冬には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の公式文化イベントであった「ファイヤーアートフェスタ2018」を企画する中、多くのエネルギーの消耗とストレスが原因となってショックが訪れ、病院に長期間入院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深刻な状態から峠を越え、病床上に横たわって本プログラムを実施するかについて深く考えてみた。

移動するという魅力的なプログラムに芸術家たちは非常に興味を持ち、期待に胸を膨らませていたので、現地にキュレーターと一緒にいくことはできないが、代わりにその役割を十分に果たすことのできる中国と韓国の芸術家を一人ずつ選び、本プログラムを実施することにした。

企画者に代わって苦勞を快く引き受けて実施して下さったチェ・ソグン先生と、北京で動きながらすべての指揮を執って下さったジョウ・チー先生に、深く 尊敬と共に感謝のご挨拶を申し上げたい。

中国・ハルビンとの交流プログラムは、長らく信頼と友情を寄せている中国の芸術家ジョウ・チー先生が全面的にご尽力くださったおかげで、どうにか実施することができた。韓国をとて愛しておられるジョウ・チー先生に、改めて頭を下げて感謝申し上げたい。

また、ハルビンでの交流が実現するようにご支援くださったハルビン大学の**孟宪德副院长**と**张洪训**副教授、釜山の芸術家が滞在する間にお世話になった、**黑龙江省美术馆副馆长 张洪训**、**芸術家 周祁**と**文光锡**

様にも御礼申し上げたい。しかしながら、ハルビンとの芸術家交流は思っていた通りには行われなかった。ハルビンはまだ芸術交流の経験が多くなく、さらに、私たちが考えていた現代美術の交流はまだ活発ではなかったため、計画していた芸術家交流はスムーズとはいかなかったが、ハルビンの芸術家が釜山の芸術家の活動する姿とラウンドテーブルを実施する中で、その創作活動を発表するのを見て相当な衝撃と大きな関心を見せたそうである。事実、黒竜江省の優れた芸術家の中には、すでに北京や上海等の大都市で、私たちの認識する現代美術において旺盛な活動をしている芸術家が多くいる。現地で活動している芸術家たちは、概ね美術教育のための芸術家であるか、版画、構想作業等を行っている。しかし、大きな変化を迎えている中国として、ハルビンも芸術交流の必要性を深く感じているはずである。

ハルビンの松花江は、満州の平野を流れて東海に注いでいる。韓国と接している所である。日本もまた、同じ海を挟んで向かい合う国である。同質性と異質性を持ち、共に理解して共有し合いながら、様々な東アジア文化交流が飛躍するきっかけ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

ささやかに始まった本交流が種となり、互いを見つめる様々な観点の幅が広がってほしいと願っている。そして、このような様々な文化芸術交流イベントを通じて、釜山の文化芸術もまた飛躍するきっかけとなる、小さな足掛かりとなることを願う。



Section 2

참여작가 Artists

엄정원 EOM JEONG WON

최석운 CHOI SUK UN

변대용 BYEN DAE YONG

송성진 SONG SUNG JIN

조정현 CHO JUNG HYUN

니시지마 나츠미 NISHIJIMA NATUMI

카네야스 히로시 KANEYASU HIROSHI

코디네이터 Coordinator

김이선 KIM YI SUN



엄정원

EOM JEONG WON

Kanazawa, JAPAN

2018. 10. 1. ~ 31.

개인전

- 2018 〈형제섬〉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 2017 〈1:60〉, Open Call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re UK, 런던, 영국
- 2015 〈Like Flying〉, Atelier Foret, 부산, 한국

단체전

- 2018 〈아트악센트〉, ZERO 아트부산 빅스코, 부산, 한국
- 2017 〈Authentic Tongues〉, Bloomsbury Theatre, 런던, 영국
(Co-Curated with Georgia Lucas-Going)
- 2017 〈I Have Conversed with the Spiritual Sun that I Saw them on Primrose Hill〉,
Primrose Hill, 영국, 런던(Co-Curated with Josh Wirz)
- 2017 〈MEMEMEME〉, Crypt gallery, 런던, 영국
- 2016 〈Pillow Swallow Hollow Yellow〉, Artwall project space, 아테네, 그리스
- 2016 〈forwards+backwards〉, Dona's house, 리스본, 포르투갈

Solo Exhibition

- 2018 Brother Island, Hongti Art Center, Busan, S.Korea
- 2017 1:60, Open Call Exhibition, Korea Cultural Center UK, London, UK
- 2015 Like Flying, Atelier Foret, Busan, S.Korea

Group Exhibition and Curated Exhibition

- 2018 A Field to Getting Lost, TAF. Athens, Greece
Art Accent : Zero, Art Busan, Bexco, Busan, S.Korea
- 2017 Authentic Tongues, Bloomsbury Theatre, London
(Co-Curated Georgia Lucas-Going)
I Have Conversed with the Spiritual Sun that I Saw them on Primrose Hill,
Primrose Hill, London(Co-Curated Josh Wirz)
MEMEMEME, Crypt gallery, London



가나자와 토이아마치 스튜디오
KANAZAWA TOIYA MACHI STUDIO

지원동기와 예상작업방향

2018년 초 부산에서 <무엇이든 사물>이라는 개인적인 관찰을 기록한 사진작업은 사물의 본래 성격이 약간 뒤틀려 다르게 기능을 하는 사물들을 보여준다.

그 중에는 부러진 플라스틱의자를 누런색 테이프로 칭칭 감은 것, 양동이 아래부분에 구멍을 뚫고 스펀지를 넣어 물을 걸러내는 본래 무언가 담는 양동이의 용도가 변한 것 등이 있다. 이들은 사물이 잃어버린 부분을 다른 사물로 매워 채우는 것, 다른 사물이 결합하는 것, 기능과 목적이 변형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주로 우연과 원시적인 방식이 개입한다. 여기서 나는 사물의 종류, 형태보다는 변형된 과정과 접근방식에 집중한다.

가나자와 토이아마치 레지던시의 지원서는 앞의 생각을 확장된 방향으로 제안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예시로 들고 에너지를 배달하는 기능을 하는 댐, 통신시설, 파이프라인 등 보다 큰 규모의 구조물을 <무엇이든 사물>과 연결지으려고 한다. 가나자와의 공예품을 직접 체험하고 그 작업방식을 본인의 작업으로 빌려와 비디오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志愿动机与预想工作方向

2018年初，在釜山记录的个人摄影工作《任何事物》展示了与事物原始性质不同的其他功能。其中包括用胶带缠好的折断的塑料椅子，在桶下方穿孔放入海绵，用于过滤水，改变了桶原来的用途。通过填补或结合其他事物的方式改变其功能和目的，该方式包含了偶然性和原始性。在这里我将重点放在变化过程和接近方式，而不是事物的种类和形态。

金泽问屋町摄影棚培训志愿书正是这种想法的扩张方向。以基础设施为例，链接用于传送能量的水坝、通信设施、管道等较大规模构造物和《任何事物》。我们的目标是亲身体验가나자와工艺品，借用其工作方式，通过视频表现其想法。

志愿同期と予想作業方向

2018年の初め頃釜山(プサン)で〈なんでも事物〉という個人的な観察を記録した写真作業は、モノの本来の性格がややねじられて違う機能をする事物たちを見せる。その中には壊れたプラスチックの椅子を黄色いテープでくるくる巻いたもの、バケツの下に穴をあけてスポンジを入れて水を漉すようにして、もともとは何かを溜めるためのバケツの用途が変わったものなどがある。これらはモノが失ってしまった部分をほかのモノで埋めること、ほかのモノが結合すること、機能と目的が変わることに構成されていて、主に偶然と原始的な方式が介入される。ここで私はモノの種類や形よりは変形された過程と接近方式に集中した。

金沢問屋町レジデンスへの志愿書はこの考えを拡張させた方向で提案しながら、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を例として挙げエネルギーを伝えるダム、通信施設、パイプラインなどより大きい規模の構造物を〈なんでも事物〉とつなげようとしている。金沢の工艺品を直接体験し、その作業方式を本人の作業に取り入れ映像を通じて表現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토이아마치 스튜디오에서의 작업과정

토이아마치가 속한 가나자와시는 전통공예품의 역사가 깊은 곳이며 이시키와공예관을 비롯하여 장인들이 운영하는 공예상점들이 많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워크샵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금박, 옷칠, 쿠타니 도자기, 카가 유젠 실 크염색 등 다양하다.

본인의 작업은 수공예품의 판매와 유통과정을 관찰하면서 직접 구입하거나 길에서 발견한 물건들은 모으는 것으로 시작한다. 특정한 공예품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적 여정과 체험을 매일 기록한다. 수공예품이 생산된 장소부터 판매까지의 여정, 그리고 다시 재활용되는 중고상점에 방문한다. 이와 함께 〈이시키와 공예관〉¹에서 공예품소장전시를 관람하고 요세기&하쿠소보쿠 천드로잉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공예축제에서 장인들의 작업실과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모든 연령이 체험할 수 있는 유료 공예워크샵 중 옷칠체험에 참여하였다.

问屋町摄影棚工作室的工作过程

问屋汀摄影棚所在的金沢市拥有悠久的传统工艺品历史，这里有石川工艺馆，并有很多工匠们运营的工艺品店和多样的体验项目。包括金箔・漆器・陶瓷品・丝绸染色等。我的工作首先是观察手工艺品的销售和流通过程，购买并收集物品。与其说是选购特定的工艺品，不如说是每天记录旅程和体验。访问制作和销售工艺品的地点，参访二手商店等。在《石川工艺馆》参观了工艺品收藏展，并参加了Yoshimitsu & Hakushoboku布料图研讨会。在工艺庆典中，参观工匠们的工作室，欣赏他们的作品，并参与了所有年龄层都能体验的漆器体验活动。

問屋町スタジオでの作業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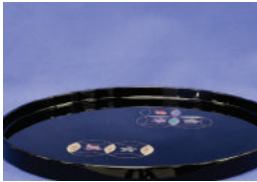
問屋町のある金沢市は伝統工芸品の歴史が深い所であり、石川工芸館を含め職人が運営する工芸品の店が多く、直接体験できるワークショッププログラムも豊富である。代表的なものとしては金箔、ウルシ、九谷焼、加賀友禅シルク染色など多様なものがある。

本人の作業は手工芸品の販売及び流通過程を観察しながら直接購入したり、道で発見したものを集めることから始まる。特定工芸品を選ぶよりは個人的な旅程や体験を毎日記録する。手工芸品が生産された場所から販売までの旅程、そしてまたリサイクルされるリサイクルショップに訪問する。その中で〈石川工芸館〉¹で工芸品の展示を観覧し、寄木&帛書墨布ドロ잉ワークショップに参加した。工芸フェスタで職人たちの作業室と彼らの作品を鑑賞し全年齢が体験できる有料工芸ワークショップの中のウルシ体験にも参加した。

워크샵 研讨会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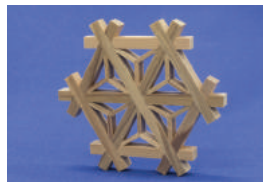
종이뜨기&종이코스터 워크샵 / 가나자와 유와쿠 에도무라 공예축제 워크샵 프로그램 / 참가비 1000엔
 造纸和纸杯垫研讨会 · 金泽打结江戸村; 工艺庆典项目 · 参加费用1000¥
 紙施き&紙コースターワークショップ/金沢湯涌江戸村/工芸フェスタワークショッププログラム/参加費 ¥ 1,000



옷칠체험(우루시) / 시누키 빌딩 / 공예축제 워크샵 프로그램 / 참가비 3200엔
 漆器体验 · 松井建筑; 工艺庆典项目 · 参加费用3200¥
 ウルシ体験/しいのき迎賓館/工芸フェスタワークショッププログラム/参加費 ¥ 3,200



하쿠쇼보쿠 천드로잉 / 이시카와 공예관 / 참가비 500엔
 Yoshimitsu & Hakushoboku 布料图/石川工艺馆 · 参加费用500¥
 帛書墨布드로잉/石川工芸館/参加費 ¥ 500



문살체험(요세기) / 이시카와 공예관 / 참가비 1000엔
 寄木体验/石川工芸館/参加費 ¥ 1000
 寄木细工; 石川工艺馆 · 参加费用1000¥

〈이시카와 공예관〉에는 축제에서 직접 쓰이는 수공예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축제에 대한 안내정보도 있다. 그중에서 본인은 매년 10월 츠루기에서(가나자와역에서 기차로 20분 소요) 열리는 호라이마츠리에 방문했다. 추수감사축제인데 일본의 토속신령이 깃든 장식물(미코시)을 여러명의 남자와 소수의 여자가 짊어지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곳곳을 돌아 다닌다. ‘미코시’는 신사에 머물러 있는 신을 밖으로 모시기 위한 도구이다. 신사, 봉황, 장군, 왕, 마네키네코 등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미코시’가 지나간 자리에 가족의 행복과 건강, 사업의 번창, 풍작 등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무게 때문에 10미터도 채 못가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주저앉아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다. 행렬을 선두에 선 한 사람은 평평한 나무막대를 요란하게 치며 방향을 잡는다. 가마위에는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구호와 힘을 북돋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른다. 이와 함께 거리 곳곳에서 커다란 사자머리(시시가사리)를 쓰거나 양팔로 들고 짊어짐(시시마이, 사자춤)을 하는데 긴 칼을 든 어린 남자 아이 또는 남자 어른과 사자와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는 내용이다. 악령을 몰아내고 풍년을 기원하거나, 복을 부르는 염원을 담고 있다.

1 展示石川县生产的工艺品的博物馆

《石川工艺馆》展示了很多用于庆典的手工艺品和有关庆典的情报指南。我访问了每年10月份在츠루기(从金泽站乘火车需要20分钟)举行的蓬莱園祭。这是秋收感恩庆典,几名男士和少数女性扛着日本的土俗神靈装饰品(御典),喊着口号,在街上结对而行。御典是用于将停留在神社上的神送到外面的道具。它们是神社、凤凰、将军、国王、招财猫等的形态。人们认为御典经过的地方会有好事发生,比如,家族的幸福和健康、事业繁荣、丰收等。由于道具很重,行走10米左右就会满头大汗,无法前行,他们反复行走和休息。队列前方有一个人敲打扁平的木棍,引导方向。轿子上有一个人拿着麦克风反复口号和歌曲。同时,街上到处都是带着或者拿着狮子头跳着狮子舞的人和拿着长刀的男孩或男人打架的场景,最后是男孩或男人胜利的内容。这蕴含着驱除恶灵,祈祷丰收或福的心愿。

〈石川工芸館〉では祭りで使われる手工芸品が沢山展示されていて、祭りに関する案内情報もある。その中で本人は毎年10月鶴来町(金沢駅から車で約20分所要)で開かれるほうらい祭りを体験した。収穫感謝祭で、日本伝統の神が宿る飾り物(神輿)を何人かの男性と女性が担いで掛け声をかけながら町を回る。「神輿」は神社にいる神を外に渡御するための道具である。神社、鳳、将軍、王、招き猫などの形をしていて人々は「神輿」が通った道には幸せと健康、商売繁盛、豊作など良いことが起こると信じる。あまりにも重いので10メートルも進まず人々は汗を流しながら座り込んでまた立ち上がることを繰り返す。行列の一番前に立つ者は平らな棒を叩きながら進む方向を示す。神輿の上には一人の人がマイクを手にして掛け声と励ましの歌を繰り返して歌う。これとともに街の中では大きな獅子頭をかぶったり、両腕で小さい仕草(獅子舞)をするが、その内容は刀を持った幼い男の子または大人の男性が獅子と戦って勝つという内容である。鬼を追い払い、福を招きたいという心が込められている。



호라이 마츄리 HORAI MATURI

작업의 발전과 결과, 전시회와 콜라보레이션

퍼포먼스〈무엇이든 사물〉은 단지 필요에 의해 그 용도나 기능이 변형된 사물들의 기록사진이며 본인은 그 원시적이고 유희적 형태에 끌렸다. 제안서에서 제시한 보다 큰 구조물 인프라스트럭처와의 직접적인 연결에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오히려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은 워크샵, 축제, 여행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필터링된 풍경들이 대신한다. 본인은 토이아마치 스튜디오를 기점으로 주변 여러 장소를 여행하며 용지사용의 특이점을 살펴보고 풍경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건물, 논 등을 하나의 요소로 잘라내고 가끔 몇 가지 풍경들을 결합하는 것을 시도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손으로 제작되는 공예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디지털 사진을 오리고 붙이면서 핸드메이드 풍경화를 제작한다. 컨베이어 벨트 자체는 비디오에 나타나지 않지만 타이틀 ‘컨베이어 벨트 풍경’에서 풍경자체를 산업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낸 생산품처럼 다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최종 전시회에서 보인 비디오 ‘컨베이어벨트 풍경’의 전체적인 구성은 회전스시식당의 컨베이어벨트의 움직임을 빌려왔다. 또한 이 움직임은 열차에 앉아서 바라보는 창밖 풍경과 유사하다. 먼저 논, 하늘, 공장, 마트의 이미지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간다. 토이아마치는 본래 농지와 창고건물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대형슈퍼, 고급 주택들,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주유소, 중고상점 등이 들어오면서 용지가 본래의 논밭과 무질서하게 뒤섞여있고 비교적 직선형태로 뺀 도로가 놓여져있다. 여기를 지나 공항과 또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있다. 이러한 특징이 가나자와 시와는 대조적인 것을 흥미롭게 생각하여 본인은 그 풍경들을 비디오와 연속사진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상에서 사진을 오려내고 어떤 것은 부분사진을 복사-붙여넣기로 편집하여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비디오소스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워크샵과 축제(마츄리)를 통해서 본 수공예품을 회전 애니메이션으로 편집한다. 비디오 ‘컨베이어 벨트 풍경’에 축제의 사자머리 춤과 흰색 신성한 돌의 휘파람 소리는 축제에서 일본인들이 토속신령을 거대하게 만들었을 때 수공예품이 신성시되는 지점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한 작업 결과물이다.

工作的发展和结果・展示会和合作表演

《任何事物》记录了根据需求其用途和功能被改变的事物・而我被这种原始性和戏剧性形态深深吸引。在提案书提示的直接连接较大构造物基础设施有一定的限度。我们可以将基础设施概念用通过研讨会、庆典、旅行等过滤的风景替代。本人以屋町摄影棚为起点・旅行了周边许多场所・查看用纸使用的特异点・宏观地观察风景,并将建筑物、水田等切成一个要素,偶尔试图结合几个风景。把从头到尾以手工制作的工艺品的形象通过附加和切割数码照片来制作手工山水画。传送带本身不出现在影像中・但在题目‘传送带景观’中这暗示着,将风景本身描绘成产业输送带上的拍出来的产品。

最后展会上呈现的影像‘传送带景观’的整体构成是借用了旋转时餐厅的传送带的动向。此外,这一动向与坐在火车上的窗外风景相似。首先,水田、天空、工厂、超市的形象从右侧往左流。屋町摄影棚虽本来是农地和仓库建筑,但最近大型超市、高级住宅、咖啡厅、家庭餐厅、加油站、二手商店等入住之后,地皮与原来的农田混杂在一起,呈现出比较直线形态的道路。通过这里・有一条连接机场和另一个城市的高速公路。我很有意思地注意到这与金泽市形成鲜明对比・将这些场景记录为视频和连续照片。然后我们在计算机上剪切图片・其中一些使用复制粘贴来编辑和创建用作视频源。与此同时通过工作和节日(马茨里)将本作手工艺品编辑成旋转动画。影像‘传送带景观’中・庆典的狮子头舞和白色神圣的石头口哨声是在庆典上日本人把土地神灵变得巨大时,对手工艺品被视为神圣的过程有趣并对此做出反应的工作结果。

作業の発展と結果、展示会とコラボレーションパフォーマン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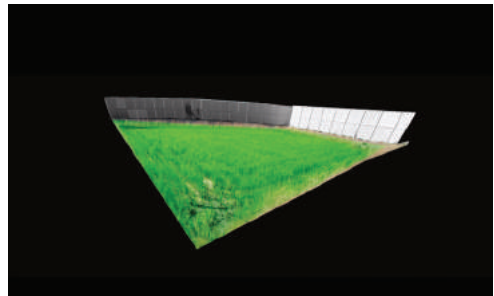
<なんでも事物>はただ必要に応じてその用途や機能が変わってしまったモノたちの記録写真であり、その原始的で遊戯的な形に心がひかれた。提案書で提案したより大きい構造物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と直接繋げるには限界がある。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の概念はワークショップ、祭り、旅行を通じて主観的にフィルタリングされた風景がその代わりになった。本人は問屋町スタジオを起点に周辺の色々な場所を訪問することで用紙使用の特异点を観察し、風景を巨視的に見ながら建物、田んぼなどを一つの要素として切り上げ、たまにいくつかの風景を結合することを試みた。一から十まで手で作られる工芸品が製作されるような印象をデジタル写真を切って貼りながらハンドメイドの風景画を制作した。ベルトコンベアそのものは映像には出ないが、タイトルの「ベルトコンベア風景」で風景そのものを産業用ベルトコンベアで作出した生産品のように扱っていることを暗示する。最終の展示会で見せた映像「ベルトコンベア風景」の全体的な構成は回転寿司のベルトコンベアの動きを取り入れたものである。また、この動きは電車に乗って眺める窓の向こうの風景と似ている。まず田んぼ、空、工場、スーパーのイメージを右から左へと眺めていく。問屋町は本来農地と倉庫用の建物がほとんどだったが、最近は大規模スーパーマーケットや高級住宅、カフェ、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ガソリンスタンド、リサイクルショップなどが入ってきて用地と本来の田んぼなどが秩序なく入り混じっている。そして比較的直線の道路がある。ここを過ぎていくと空港とほかの都市につながる高速道路があらわれる。このような特徴が金沢市とは対照的だと考え本人はその風景を映像と連続写真で記録した。そのあとコンピューターで写真を切り、あるものは部分的にコピー&ペーストして編集し一つの風景を作り出しビデオソースとして活用した。これとともにワークショップと祭りで見たこの手工芸品を回転アニメーションに編集した。映像「ベルトコンベア風景」に祭りの獅子舞と白い聖なる石の口笛の音は祭りで日本人が土俗的な神霊を巨大に作った時に手工芸品が聖なるものになる視点を興味深く観察しそれに反応した結果得た作業結果物である。



비디오 '컨베이어 벨트 풍경' 설치장면
10.31-11.6 토이아마치 스튜디오, 가나자와

影像'传送带景观'设置场面
10.31-11.6问屋町摄影棚·金泽

映像「ベルトコンベア風景」の設置場面
10.31-11.6問屋町スタジオ、金沢



비디오 '컨베이어 벨트 풍경' 스틸컷
影像'传送带景观'剧照
映像「ベルトコンベア風景」のスティールカット

니시지마 나츠미 작가와 퍼포먼스 ~대화(발음: 뇨로 뇨로 대화)

ニヨロニヨロ 対話 / Nyoro nyoro Dialogue

니시지마 나츠미(Nishijima Natsumi) 작가는 2018년 9월 홍티아트센터 레지던시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속적으로 본인과의 작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퍼포먼스 이벤트 '~대화'를 함께 했다. 뇨로 뇨로(ニヨロニヨロ)는 일본에서 '~' 물결표와 구불구불한 뱀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핀란드 무민 캐릭터 중 해 티파트너(Hattifatteners)의 일본식 이름이다. 또한 해티파트너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몸으로 소통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다중적 의미를 가진 뇨로 뇨로를 퍼포먼스 타이틀로 정했다. 2시간에 걸친 퍼포먼스에서 니시지마는 관객에게 우연히 들은 단어 '사슴'을 일본어로 쓰고 그 주위로 형형색색의 펜으로 퍼져나가는 라인드로잉을 한다. 그리고 엄은 니시지마의 평면적 라인드로잉을 스크린으로 불러오며 비디오피드백 효과를 이용하여 그 자신 또한 평면적 스크린에 테이프를 덕지덕지 바르고 크레용으로 선을 그어 스크린 안과 밖의 공간개념을 흐린다. 두 명의 퍼포머가 입고있는 가슴스트랩에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기록되는 정보들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전송된다.

Nishijima Natsumi 作者和表演~对话 (发音 : Nyoro nyoro 对话)

Nishijima Natsumi 作者参加了2018年9月hong-ti艺术中心的培训项目·持续地与我分享了作业思维·最终一起在日本展开了发展此思维的表演活动'~对话'。

Nyoro nyoro 在日本意味着符号"~"和曲折的蛇的动作·也是芬兰姆明卡通Hattifatteners的日式名字·此外·根据Hattifatteners说不了话·而个小时的表演中Nishijima把偶然听到有位观众说的'鹿'一词用日文写下后·用形形色色的比来绘画其周围·Osamu把Nishijima的平面线条图案转换到屏幕上·利用影像反馈效果她本人也在平面屏幕上粘贴交代·用蜡笔画线条去浑浊屏幕内外的空间概念·连接在两位表演者佩戴的胸前的智能手机记录的信息通过SNS实时传输到互联网上。

西島夏海作家とのパフォーマンス~対話(発音:ニヨロニヨロ対話)

Nyoro nyoro Dialogue

西島夏海(Nishijima Natsumi)作家は2018年ホンティアートセンターのレジデンシープログラムに参加し、その後も持続的に本人と作業アイデアを共有し最終的には日本でそのアイデアを発展させたパフォーマンスイベント「対話」を一緒に行った。ニヨロニヨロは日本で「~」とくねくねとした蛇の動きを表すもので、フィンランドのムーミンに出るキャラクターのハティファッター(Hattifatteners)の日本名である。それにハティファッターはしゃべることができず体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するというのを考えて多重的な意味を持つニヨロニヨロをパフォーマンスタイトルにした。2時間にわたるパフォーマンスで西島は観覧客から偶然聞いた単語である「鹿」を日本語で書いてその周りを様々な色のペンで広がる形のラインドロ잉をする。そしてオムは西島の平面的なラインドロ잉をスクリーンに呼び出してビデオフィードバック効果を利用し自分自身まで平面的なスクリーンにテープを張り、クレヨンで線を引いてスクリーンの外側と中側の空間概念を濁す。二人のパフォーマーが着ている胸のストラップに装着されたスマートフォンに記録される情報はSNSを通じてリアルタイムでインターネットに配信される。



가나자와 신문에 소개된 전시 '컨베이어 벨트 풍경' 과
퍼포먼스 이벤트 '~ 대화' 인터뷰기사퍼포먼스 이벤트 NyoroNyoro 대화,
10월 31일 오후 6:30-오후 8:30 사진 Makishima Osamu

金沢报纸介绍的展览'传送带景观'和表演活动'~对话'采访新闻
表演活动Nyoro nyoro对话
10月31日 下午 6:30-下午8:30 照片Makishima Osamu

金沢新聞に紹介された展示「ベルトコンベア風景」と
パフォーマンスイベント「~対話」インタビュー記事
パフォーマンスイベントニョロニョロ対話
10月31日午後6:30-午後8:30 写真 Makishima Osamu



Multi Dimensional Communication
Performance with Nishijima Natsumi & Eom Jeongwon
~대화
니요로니요로 대화
18:30-20:30
Toiyamachi Studio
Oct 31 2018
問屋まちスタジオ

Conveyor Belt Landscapes
video screening
by Eom Jeongwon
Oct 31 - Nov 6
15:00 - 19:00
(on Sat - 17:00)
Closed on Sunday

~대화 니요로니요로 대화

Nyoro nyoro Dialogue 퍼포먼스 이벤트
니시지마 나츠미&엄정원
일시 : 2018.10.31 6:30pm - 8:30pm
장소 : 토이아마치 스튜디오 2층

컨베이어 벨트 풍경

Conveyor Belt Landscapes
일시 : 2018.10.31-11.6
시간 : 15:00-19:00(수요일 일요일 휴관)
장소 : 토이아마치 스튜디오 2층

~对话

Nyoro nyoro Fialogue表演活动
Nishijima Natsumi&UHM JUNG WON
时日 : 2018.10.31 6:30pm-8:30pm
场所 : 问屋町摄影棚 2楼

传送带景观

Conveyor Belt Landscapes
时日 : 2018.10.31-11.6
时间 : 15 : 00-19:00 (星期三 星期日 休馆)
场所 : 问屋町摄影棚 2楼

~对话 니요로니요로 대화

Nyoro nyoro Dialogue/퍼포먼스 이벤트
西島夏海&오ムジョンウォン
日時:2018.10.31 6:30pm-8:30pm
場所:問屋町スタジオ2階

コンベヤーベルト風景

Conveyor Belt Landscapes
日時:2018.10.31
時間:15:00-19:00(水曜・日曜は休館)
場所:問屋町スタジオ2階

덧붙여 작업진행과정에서 겪는 언어장애, 이동, 지역정보, 작업재료구입, 워크샵 안내 등 많은 부분에서 코지 나카세 교수님(가나자와 공예대학), 아트구미 코모리 타카후미와 우에다 요코, 수주투어를 흔쾌히 허락해주신 우도 유카리 감독님, 토이아마치 스튜디오 아티스트 사지키 마리코, 이마오 타쿠마, 사도사카 쇼타, 키쿠야 사토시 그리고 함께 작업한 작가 니시지마 나츠미 등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현지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용이하게 도와주신 부산문화재단에 감사의 말을 드린다.

此外,在工作过程中所经历的语言障碍、移动、地区信息、作业材料购买、研讨会说明等诸多方面给予了帮助。康志中瀬教授(金泽工艺大学)、Ateugumi Komoli Takahumiwa Ueda Yoko、欣然允许授柱旅游的Udo Yukari导演、问屋町摄影棚艺术家栈敷麻里子、今井拓马、佐渡Shokota、Satoshi Kikuya、以及一起作业的作者Nishijima Natsumi等。此外,还向釜山文化财团和特别给使当地交流更便利的负责职员CHO HYEY LYM表示感谢。

ちなみに作業を進める中で経験した言語障害、移動、地域情報、作業材料の購入、ワークショップ案内などに関連して康志中瀬教授(金沢工芸大学)、アートグミの小森隆文さんと上田陽子さん、受注ツアーを喜んで承諾して下さったうどうゆかり監督、問屋町スタジオのアーティストの佐直麻里子さん、今尾拓真さん、門阪翔大さん、菊谷達史さん、そして一緒に作業した作家の西島夏海さんなど多くの人々の手助けがあった。そして現地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スムーズにできるように手伝って下さった釜山文化財団に感謝する。

최석운

CHOI SUK UN

Harbin, CHINA

2018. 9. 18. ~ 23.

개인전

가람화랑, 샘터화랑, 부산공간화랑, 아라리오화랑, 금호미술관, 포스코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아트센터 등

2018 세계 한민족 미술대축제-우리집은 어디인가? (예술의전당, 서울)

한중일 현대미술제 삼국미감전 (삼탄아트마인, 정선)

2017 한국의 얼굴 (정부서울청사)

물 때-해녀의 시간 (제주도립미술관)

레지던시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스튜디오 (2011)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10)

가나아트부산 창작스튜디오 (2008)

2018 Where is our home? (Seoul Arts Center Design Museum)

Scenes of Cheonggyecheon Stream (Cheong Gye Cheon Museum, Seoul)

Reflection on the Aesthetics of Contemporary art in Korea,China

Japen (Samtan Art Mine, Jueungsun)

2017 Moontides for Jeju Haenyeo (Jeju Museum of Art)

The Face of Korea (Gavement Building in Seoul)

Gangneung, Draw a picture the landscape and benevolence

2016 Dock Do, aquamarine color (Deagu Art Center)

2015 Dad's Best Years (Gwanggu Museum of Art)

2014 21C Genre Painting (Icheon Museum of Art)

2013 Draw a Silk Road (Daegu mbc Gallery)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들

하얼빈은 중국의 다른 도시와는 많이 다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고풍스럽고 매력이 넘친다. 하얼빈의 가장 변화한 상업거리로 보이는 중앙대가의 거리를 걷는다. 발에 닿는 바닥의 촉감이 느긋하고 멋스럽다. 100여 년 전에 땅속에 돌을 촘촘이 박아 넣어 만든 넓은 길이다. 바로크 풍의 건축물들은 정교하게 각을 내고 이리저리 모양을 빚어 웅장함과 세련된 권위를 느끼게 한다. 자동차의 경적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후의 햇살이 따사롭게 얼굴에 드리워진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가 넘친다. 상가의 외벽에 붙은 한자로 새겨진 간판이 없었다면 유럽의 어느 멋진 곳이라 착각했을 것이다. 길을 거니는 사람들마다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쥐어져있다. 러시아와 왕래가 많았던 시절 인기가 있었던, 얇은 나무 스틱이 꽂힌 고전적인 모양의 달달한 연유 맛 빙과이다. 하얼빈 중앙대가를 오가는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변함없는 것은 이 빙과 맛일 수도 있겠다.

哈尔滨与中国其他城市大有不同。从历史上看，受到了俄罗斯和欧洲的影响，充满了古典魅力。走在看似哈尔滨最繁华的商业街中央大街。触摸在脚底下的触感悠闲而气派。在100年前在地上嵌入石块而成的宽阔的道路。巴洛克风格的建筑物精巧地刻画了各种形状，让人感受到了雄伟和干练的权威。听不到汽车的鸣笛声。午后阳光照射到的人们的表情充满了悠闲。如果商场外墙上没有中文刻上的标志，你会误以为是欧洲一个美妙的地方。走在街上的每个人手里都拿着雪糕。与俄罗斯交往较多时有名的，插着薄木棒的传统模样甜甜的奶酪味雪糕。来回哈尔滨中央大街的人可能发生了很大的变化，但未改变的或许是这雪糕。

Harbinは中国の他の都市とは大きく異なる。歴史的にロシアとヨーロッパの影響を大きく受けたとされているが、古めかしくて魅力が溢れている。Harbinの一番盛んな商業街と言われている中央大街の街を歩く。足と接する地面の触感がのんびりしていて、格好いい感じだ。約100年程前、土の中に石を使って作った広い道だ。バロック風の建物は繊細に造られ、壮大さと洗練された権威が感じられる。自動車のクラクションの音もしない。午後の日差しが暖かく照らし、人々の顔には余裕がある。商店街の外壁に貼られている漢字の看板がなかったらヨーロッパのとある素敵な場所だと勘違いしてしまうはずだ。道を歩いている人々は手にアイスクリーム持って歩いている。ロシアと往来が多かった時代、大人気だった薄い木のスティックがさされている、古典的な形の甘い練乳味の氷菓だ。Harbin 中央大街を行き来する人々は大きく変化したが、変わらないのはこの氷菓の味だけかもしれない。



수익금
20100
아이스크림 먹는
Harbin 여자
중앙애가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들
吃冰糕的人们
アイスクリームを食べる人たち



실험실

전에 수용소 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쇼아'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상영 시간이 무려 14시간이나 되는 영화는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경악스러운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박2일간 진행된 영화를 보고 난 후 한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얼빈의 남쪽 외곽에 731부대의 잔재와 잔혹성을 기록한 장소가 있다. 외벽이 검은 색인 무거운 모양을 한 건물의 야외 초입에는 '침략 일군 제731부대 최종 진열관' 이라고 한자로 적혀있다. 실내의 진열대 입구로 들어서면 '비인도적 잔학 행위' 라는 글이 한국, 중국, 러시아, 영어로 붉게 녹물 든 큰 철판에 부조 되어있다. 간접적으로 영상이나 책을 통해 접했지만 인간이 저지른 것으로 믿기지 않은 생생한 증언을 대신하는 문구이다. 우리가 별생각 없이 구사하는 '마루타'의 뜻은 껍질을 벗긴 통나무라는 뜻의 일본말이다. 사람을 생체로 실험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게 무엇인가.



실험실 实验室 実験室

之前在收容所研究文化为目的的地方看过叫‘Shoah’的纪录片。上映时间长达14个小时的电影记录着在2次世界大战中纳粹对犹太人所行的惊愕的纪录。看完历经1天2夜的电影后，我经历了一段难过的时间。

在哈尔滨南部郊区有记录着731部队的残留物和残酷性的场所。外墙为沉重黑色的建筑物入口用汉字写着‘侵华日军第七三一部队罪证陈列馆’。进入室内的陈列台入口，在生锈变成红色的大铁板用韩语、汉语、俄语、英语写着‘反人类暴行’。虽间接的通过影像或书籍接触过，但此句是代替无法想象是人类所行的生生的证词。我们不曾多想而使用的‘马路大’用日语剥皮的原木之意。就是进行了活体实验。由此他们究竟得到了什么。

以前、收容所文学を研究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ころで「ショア」というドキュメンタリーを見たことがある。上映時間がおよそ14時間にもなるこの映画は第二次世界大戦でナチがユダヤ人に犯した驚愕な記録がありのまま残されていた。一泊二日の間行われた映画を見た後、ひとしきり辛い時間を過ごした。Harbinの南方の外郭には731部隊の残債と残酷さを記録した場所がある。外壁が黒く重そうな形の建物の野外の入り口には、「侵華日軍第731部隊罪證陳列間」と漢字で書かれている。室内の陳列台の入り口へ入ると、「非人道的殘虐行為」という文書が韓国語、中国語、ロシア語、英語で赤く錆びた大きい鉄板に浮き彫りにされている。間接的に映像や本では接したが、到底人間が犯したとは思えない、生々しい証言に変わる文句である。我々が何気なく使う「マルタ」の意味は、皮を剥いた丸木という日本語だ。人間を対象に、生体実験を行った。そうして、彼らが得たものは一体、何だろうか。



안중근과 권총
安忠根与手枪
安重根(アン・ジュンゲン)と拳銃



안중근과 권총

한글을 배우게 되면서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안중근 기념관에서 무명지가 잘려나간 그의 흑백 초상을 바라본다. 만 21세. 그가 거사를 치른 나이다. 같은 나이 때의 내 모습을 잠시 생각했다. 안중근 의사는 십자모양이 새겨진 탄알 8발이 장전된 브라우닝 F-1900 권총을 가슴에 품고 하얼빈 역으로 향했다. 그의 눈은 아직도 ‘코리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 라고 하는 듯 환청이 들렸다.

开始学韩语·有谁不知道安忠根这名。在安忠根纪念馆遥望被砍掉无名指的黑白肖像。满21岁·是他举事的年龄。我想了下同龄时的自我。安忠根义士胸前抱着刻着十字模样的、装着8发子弹的browning F-1900手枪前往哈尔滨站。他的眼神像喊着‘大韩民国万岁’般·感觉到幻听

ハングルを学びながら安重根という名前を知らない者はいるのだろうか。安重根記念館で無名指が切られた彼の白黒肖像を眺める。満21歳。彼が舉事を行った年だ。同じ年の自分をしばらく思い浮かべた。安重根義士は十字が刻まれた、弾丸8発が装填されたブラウニングF1900拳銃を胸に抱いて、Harbin駅に向かった。彼の目が今でも「코리아우라」(大韓民国万岁)と言うかのように、幻聴が聞こえた。



하얼빈 시립미술관
Harbin Municipal Museum of Art



아티스트 토크_라운드테이블
Artist Talk _Round Table

변대용

BYEN DAE YONG

Harbin, CHINA

2018. 9. 18. ~ 23.

개인전

- 2018 Happy Together- 변대용&임국 2인전 (센텀 신세계 갤러리/ 부산)
- 2018 북극(하버시티/ 홍콩)
- 2017 원의 중심 혹은 경계(부산대아트센터/부산)

레지던스

- 2016 비발디 파크레지던스3기 (강원도 / 홍천)
- 2014 캄보디아 국제레지던스 (캄보디아)
- 2013 뉴제로 아트 스페이스(미얀마)

단체전

- 2018 Happy Together- 변대용&임국 2인전 (센텀 신세계 갤러리/ 부산)
스포츠와 미술놀이(양양군립미술관/ 경기도)
유쾌한 상상 : 팝아트 (하동아트갤러리/ 경남)
Help Earth! Help Us! . . . 우리집,지구(아람누리 미술관/ 고양)

Solo Exhibition

- 2017 'YOU & I' (IFC Seoul, Seoul)
- 2017 'On The Road' (Gallery A Ri O So, Ulsan)
- 2017 'On The Road' (Gallery Jin Sun, Seoul)
- 2016 'Melting ice, Limit try' (Gallery Lotte, Seoul)
- 2016 'On The Road' (Street Museum, Seoul)
- 2016 'Polar Bear Roll Book' (Vivaldi Park Gallery D, Hongcheon)
- 2015 'Walk' (Seo Ro Art hall in Resom Resort, Jecheon)
- 2015 'White Bear Eating Ice cream' (Seoul City Hall, Seoul)



꿀단지들 든 푸우 Pooh takes honey pot
FRP, 우레탄 페인트, 가별설치, 2008

나는 최근 부산 장림에서 김해로 작업실을 이전하게 되었다. 시골 같기도 공장지대 같기도 한 조금은 애매한 위치의 동네이지만 나는 이 애매한 동네가 오히려 장점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조금은 긴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적당한 긴장감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난 몇 차례의 이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얼빈으로 가는 비행기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관계로 부산에서 그리고 김해 외곽에서 출발하는 나와 조정현 작가는 하루 먼저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출발하기로 했다. 하루전날 대학 수업을 마치고 출발하려는데 하얼빈에 간다는 서두름이 차 사고를 내고 말았다. 중국 하얼빈에 가 있는 사이에 차를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차키를 들고 인천으로 오는 멍청한 실수까지 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당일 부산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편으로 차키를 김해 사는 친한 작가에게 부탁을 하고 하얼빈에 있는 기간 동안 차 수리를 부탁했다. 액땀을 해도 제대로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나는 하얼빈을 향하게 되었고, 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챙겼다. 평소 책 따위라고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에게 거창하게도 <인간과 공간>이라는 책을 챙겼다. 인문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나에게 책이라니... 두꺼운 책은 박사논문을 위해서 숙제처럼 받은 책이었다. 작업실에 있을 때 그렇게 읽으려고 하였으나 늘 더 재미있는 작업을 위해 나의 엉덩이는 금방 의자에서 일어났고 책은 짧은 시간동안만 숨을 쉬고 덮히길 반복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만 하는 비행 시간이 심심했었다. 그리고 미루고 잘 안 읽혀졌던 그 책이 생각나서 읽기 시작했는데 언제 이 책을 다 읽어보나 했던 두꺼운 책을 다 읽어 버렸다.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인간이 느끼는 공간을 설명하고 있다. 그 책에서는 '먼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넓은 곳과 달리, 또 인간이 쫓겨 가는 낯선 곳과 달리 먼 곳은 무언가 사람을 유혹하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끌려 거기에 가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이 달콤한 언어로 묘사했듯이 먼 곳을 동경 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의 경우가 딱 그러했다.

하얼빈은 맥주로 유명한 도시이다. 아... 나라는 사람은 하얼빈을 맥주만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가진다. 매일 밤 작업 후에 마시는 맥주 탕도 있겠지만 하얼빈이 무엇으로 유명하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을 간신히 기억해냈다. 나의 관심사가 역사에는 무지한 관계로 그렇게 하얼빈에 가게 되었다.

사실 10년 전 전시를 위해 한 번 그리고 친한 작가 전시를 도와주러 베이징을 간 것 외에는 다른 지역을 가본 것은 처음이다. 하얼빈의 첫 인상은 한국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풍경에 놀랐다. 고층 아파트들이 한국처럼 즐비하고 가게들의 풍경들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건물들을 보니 한국과의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국과 미묘하게 지붕의 장식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느껴보았다. 익숙한 한국식 아파트와 달리 지붕을 좀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파트의 색상이 갈색이나 조금 채도가 낮은 목적인 색들을 선호하는 것에서 한국의 평균적으로 흰색이나 밝은 계열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보게 되었다. 화려한 지붕을 유심히 보니 우리가 미술시간에 그렇게 암기하며 배웠던 기둥양식들이 보였다. 신전 기둥양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터스칸양식들이 하얼빈 시내 도처에 쉽게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한국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던 풍경이었으나 여기가 중국인가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곳은 지역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워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러시아 풍 건물들이 많아서 이국적인 인상을 받았다. 분명 처음 하얼빈 시내로 향할 때는 한국과 비슷한 풍경이었는데 그 속으로 들어오니 확실하게 중국적인 것과 러시아풍의 건물들로 인해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졌다. 도시의 풍경을 뒤로 하고 목적지인 하얼빈 공업대학 후문 쪽 호텔에 도착하고 짐을 풀고 우리가 세미나를 할 근처의 하얼빈 공업대학을 둘러보았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과 하얼빈의 교류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갑자기 하얼빈에 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얼빈 공업대학측은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했던 느낌이다. 부산출신의 작가들과 하얼빈 출신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서로 보고 이야기 하자는 취지였으나 의사전달의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 간 부산출신의 작가들만 발표하는 자리가 된 점이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출신의 내가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그들의 육성으로 사진 자료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갖게 되었다. 최석운 선생님의 설명은 선생님의 그림처럼 아주 재미있고 여러 가지 서사가 풍성해서 회화가 가진 보는 맛이 좋은 작품들이었다.

그리고 올해 내가 본 작가의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이 송성진 작가의 이주민의 아픔을 이야기 하고 있는 〈평조차〉라는 작품이다. SNS상으로 여러 번 사진으로 접했던 작품이고 여러 작가들이 작품 속의 공간에 갔던 후기들을 보았다. 나는 이 친구의 습성과 인성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 송성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 〈평조차〉라는 작품을 한국이 아닌 중국의 하얼빈에서 그의 생각을 듣고 또한 그가 물 위에, 아니 정확히 갯벌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다양한 퍼포먼스에 대한 영상과 자료를 보면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교수님들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에 사람의 삶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과 감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다. 내가 이 친구의 작품이 있던 경기도 제부도의 갯벌에 설치된 〈1 평조차〉라는 작품을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이 하얼빈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보았다. 언어를 통역해서 전달하는 것은

실상 말하는 자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하기 힘들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듣는 자에게 느낌을 전달 해줘야 말하는 자의 의도와 감정 등이 제대로 전달되기 쉽다. 그러나 나라마다 가치관과 정서 그리고 언어의 정확한 의미가 말하는 자의 의도처럼 쉽게 전달되리라 쉽지 않는 것 같다.

최석운선생님이 발표하고 나의 차례가 되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통역의 어려움을 생각하고는 쉽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실상 나의 작품은 그리 어렵지 않고 이야기 위주의 작품 들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미지 위주로 돌리게 되었다. 최신작에서 과거작 순으로 보여주다가 2008년 작인 <붉은곰>의 장면이 나오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순간 아주 짧게 웃는 것이었다. 통역 본인도 웃어선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인식하고 이내 표정을 가다듬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이 통역가의 웃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통역가가 나의 작품을 보고 웃은 것은 <붉은 곰>에서 표현된 <푸우>를 보고 웃었던 것이다. 푸우는 중국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별명이란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꿀단지를 들고 있는 푸우는 2008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미국을 코스프레하는 중국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당시 중국은 티베트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로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던 시점이기도 했었다. 중국을 풍자한 판다를 코스프레 하는 푸우가 이렇게 2018년 오늘 10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가 될지는 상상도 못해보았다.

중국은 식사초대에 손님에게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들은 식사초대에 가서 끝이 나지 않을 거 같은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정도 일지는 몰랐다. 한국의 딱 필요한 만큼 먹고 그만 먹는 문화와 중국의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는 문화의 차이를 식사자리에서 느꼈다. 한국에서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찾아온 이웃에게 부모님은 언제나 한 술갈 하고 가시라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기억한다. 실제로 식사를 하고 가는 이웃들을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보았으나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 있듯이 그만큼 이웃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오늘날이다. 같은 동양권의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인 중국이지만 하얼빈 지역 작가와 그 중국 작가님의 어릴 적 친구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친구의 친구가 왔다고 모든 스케줄을 챙겨주고 매일 함께한 사실은 중국에서 있었던 기간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방홍승리기념관
Fang Hong Victory Memorial Hall



아티스트 토크_ 라운드테이블
Artist Talk _Round Table

我最近把工作室从釜山长林搬到了金海。这是个像似农村，又像工厂的，稍有模糊感的地方，但到后期才知道这有模糊感的地方对我具有许多优点。所有人在陌生的地方会紧张。所以在陌生地方的重新开始总使我紧张起来。经过几次的搬家，认识到了我是享受此紧张感的人。

因去哈尔滨的飞机从仁川出发，在釜山以及金海郊区出发的我和CHO JUNG HYUN作者决定提前一天在仁川机场附近的酒店过夜后第二天出发。前一天大学教学结束后要出发时，因去哈尔滨的着急感而出了车祸。本想国哈尔滨滞留时维修车辆，但犯了带车钥匙来到仁川的傻失误。经转转波折，用当日去釜山的高速大巴，把车钥匙托付给了住金海的好友作者，我在哈尔滨期间让他帮维修了车辆。不得不去想好事多磨。虽然如此，我还是因这是久违的假期而兴奋地乘坐了飞机。

去哈尔滨之前我携带了一本书。平时压根儿不看书的我居然携带了《人与空间》为题目的书籍。厚重的书籍是因博士论文而像作业似的拿到的。在工作室时试图去阅读此书籍，但总是为了更有趣的作业，我的臀部立即离开了椅子，书籍反复了在短暂的时间呼吸后被覆盖的过程。在无法使用网络，并要坐长时间的那时段使我很无聊。所以想起了一直推掉而不好读的那本书，但不知不觉中读完了那么厚的书籍。真是不可思议。这本书举各种例子说明了人类所能感受到的空间。书里对‘远方’有这么一段话：‘与人类积极进出的宽阔的地方不同，又与人类被赶出去的陌生的地方不同，远方具有诱人之处，所以我们被动的吸引着、向往着远方。就像浪漫主义者所描述的一样，我们憧憬远方。’我就是这一情况。

哈尔滨以啤酒闻名。啊。。。我这人因只记得哈尔滨以啤酒有名而感到惨淡。也许跟每晚作业后喝啤酒的习惯有关，但我连以什么有名、具有何等历史都不知道的状态下去了哈尔滨。也艰辛地记起了哈尔滨有安忠根义士纪念馆的事实。因我的兴趣对历史如此无知的关系，我就以这种状态来到了哈尔滨。

说句实话，10年前的展示会以及为了帮好友作者的展示会而去北京以外，这次是初次去的异地。使我对哈尔滨惊讶的是与韩国无太大差别的情景。像韩国一样，高楼大厦相比了队，商家的风景也大致相同。但仔细一看，开始看出了差异。与韩国相比，微妙的更加注重了屋顶的装饰。不同与熟悉的韩国公寓，屋顶装饰得更华丽，公寓喜欢用土色或相对沉稳的色彩，而韩国一般使用白色或鲜艳系列色彩，这使我别有一番感受。仔细看华丽的屋顶，发现了我们在课堂上硬背的柱子样式。多利亚，爱奥尼亚，科林斯和托斯卡纳风格，最具代表性的寺庙柱式，在哈尔滨随处可见。起初，与韩国相差无几的风景，随即带来的异色风趣，使我怀疑此处是否是中国。后来才知道此地靠近俄罗斯，所以受俄罗斯影响较大。也许因为如此，到处有俄罗斯风格的建筑物，给了我似异国般的印象。起初进入哈尔滨市内时，明明是与韩国类似的风光，但完全进入后因其中中国风格建筑和俄罗斯风格建筑，感到别有一番新鲜感。

穿越城市的风光，我们来到了目的地，位于哈尔滨工业大学后门的酒店。解开行李后去转了我们要开研讨会的场所附近的哈尔滨工业大学。釜山文化财团准备的此活动是把焦点集中在釜山和哈尔滨之间交流的活动。



동상이몽 Different purposes
보색, FRP,우레탄 페인트, 2007

需要提及的是，因短站的时间突然来到了哈尔滨，故互相对对方的了解及准备相对不足。我们起初预想的活动，不知为何，有种未正确传达到哈尔滨工业大学的感觉。本来是互相观赏釜山出身作者和哈尔滨出身作者的作品并加以讨论，不知是否是转达失误，只有从韩国过去的釜山出身作者们进行了发表，此点最留遗憾。

虽然如此，我熟知的釜山出身作者们的作品，在他们声音的指引下观赏照片资料，受到了无比的感动。CHOI SHUK WOON老师的说明就像他的作品很有趣，具有丰盛的叙事，是为绘画特有的、有观赏品味的好作品。

并且，在今年我所见过的作者的作品中最喜爱的是SONG SUNG JIN作者的，诉说移民痛苦的作品《连1平都》。在SNS上接触过几回，看过在多数作者在作品中空间写下的留言。作为长时间观察此人的习性和人性的我，通过作品知道了SONG SUNG JIN作者要说的和他的行为具有真实性。在哈尔滨听到作品《连1平都》的作者的想法，并观看他对在水上，正确的说是在泥潭上搭建的房



屋的各种表演的影响和资料时，在场的教授们给予诸多关心，此让我再次感悟到，在人的生活中，每个人所感受到的感情和感性大致相同。我未能去设置在京畿道济扶岛泥潭的《连1平都》作品的惋惜有所解除而感到了安慰。

通过翻译来传达很难正确传达言者的感觉。说完后及时把感觉转达给听者，才能易于转达言者的意图和感情等。但是各国的价值观和情绪，以及语言的正确意思，不易像言者意图一样正确地传达给对方。

CHOI SHUK WOON老师发表后轮到我来解说作品时，想到翻译的难处，决定了简单地解说作品。

其实我的作品不怎么难理解，并且基本是以故事为主的作品，故以轻松的心情翻阅了图像为主的作品。从最新作品翻阅到过去作品时，当出现2008年之作《红色熊》时，翻译人员瞬间笑了一下。翻译人员也认知不能笑，所以立刻整理了表情，但我知道翻译人员为什么笑了。翻译人员之所以笑是因为看了在《红色熊》中的《维尼》。为你在中国意味着中国最高指导者习近平。别名赋予一个人的形象。抱着蜜罐的维尼是2008年制作的作品，表现了模仿美国的中国。当时的中国因对西藏的政治问题而成为了世界性的话头。从未想象过讽刺中国的、模仿熊猫的维尼在过10年后的现在2018年再次成为话题。

据说中国邀请客人时准备很多食物。我们去参加被邀请的饭局时，看到上永不结束般大量的料理而感到了惊讶。虽然已听说过，但没想到会是这种程度。在韩国只吃适量的食物而止的文化和中国的盛情款待的文化的差异在饭桌上感受到了。在韩国也有类似的情绪。还记得在我幼小的时候，父母向拜访我家的邻居总说吃一口再走的应酬话。小时候可自然地看到真的吃饭再走的邻居，但像现在，有不少对他人漠不关心或独自生活的人，所以像《一个人生活》等节目受欢迎，换句话说，很难再看到与邻居在一起的韩国人们的模样。在同一个东方，既近又远的邻居中国，但哈尔滨地区作者和他们的朋友们说从韩国来了朋友的朋友，照顾好所有行程以及每日陪同了我们，在中国的6天5夜是最为难忘的瞬间。



하얼빈 공과대학 부총장 접견

Meeting with Vice Chancellor,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私は最近、釜山長林から金海に作業室を移転することになった。田舎、または工場地帯のような、少し曖昧な位置にある町だが、私はこの曖昧な町にむしろ多くの長所があるということの後で気付いた。人は誰でも見知らぬ所に行けば少なからず緊張してしまう。そのようなわけで見知らぬ所で新しく始めることは、いつも私を緊張させる。私はこのようなある程度の緊張感を楽しむ人であることを、以前の何回かの引越しの経験により知ようになった。都心から離れた作業室で、夜になると周りが真っ暗になるこの場所は、特に何かをするのが難しい町だ。このような状況だからこそ、スマホを手から離さずSNSで知り合いがアップする写真や文章を都市で暮らしていたときよりもっと見るようになった。昨年の冬、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期間にカンヌンの海辺で開かれた野外彫刻展をSNSで見たが、この展示は他の展示と違って、作業を行った後その作品を燃やすことで完成させる作品だった。ちょうど彫刻をしている弟子キム・ジョンミンもその展示に参加すると言っていたのでより感心を持って見るようになった。主にその展示の紹介や広告をアップする人がいた。その方はキム・イソン先生であった。面識のないただ聞いたことのある方だった。

Harbin行きの飛行機がインチョン空港から出発するので、釜山と金海から出発する私とジョ・ジョンヒョン作家は一日早くインチョン空港近くのホテルに泊まり、翌日の朝出発することにした。出発する前日、大学での授業を終わらせた後、空港に向かう途中、車の事故を起こしてしまった。Harbinに行くので気持ちが浮かれていたせいであろう。中国のHarbinにいる間、車を整備しようと思ったが、車の鍵をもってインチョン空港まで行くというミスまでしてしまった。紆余曲折の末、当日釜山行き的高速バスに乗せて車の鍵を金海に住む親しい作家に預けてHarbinにいる間の車の修理を頼んだ。厄払いにもほどがあると思えなかった。それにも関わらず、私は久々の休みではあらずむ気持ちで飛行機に乗ることになった。

私はHarbinに本を一冊持って行った。普段本をあまり読まない私らしくなく『人間と空間』という難そうな本を持って行った。人文学を全く知らない私にこの本はちょっと…その厚い本は博士論文のため、課題のようにもらった本であった。作業室にいるとき読もうとしたが、いつも面白い作業をするため、私はすぐ椅子から立ちあがるが多かった、その中で本はいつも後回しになって置きっぱなしになっていた。私にとってそんな存在であった「本」を、ネットがちゃんとつながらず長時間座っていないといけなく、その退屈な時間の間、後回しにしていた厚い本をいつの間にか全部読んでしまった。実に不思議だとしかいいようがなかった。本の中では、様々な例で人間を感じる空間を説明していた。その本では「遠いところ」の話が登場する。「人間が積極的に進出する広いところと違い、また人間が追い込まれて到達する見知らぬところと違い、遠いところは何か人を誘惑するものがあって私たちは受け身的に引かれてそこに行きたがる。それで、浪漫主義者たちが甘い言葉で描写したように遠いところにあこがれる。」という文章があったが、それは正に私の状況と同じであった。

Harbinはビールで有名な都市だ。あ、国は、人は、Harbinをビールでしか有名どころだと思っていないことに悔しさを感じる。毎晩作業の後に飲むビールのせいだとも思うが、Harbinが何が有名でどのような歴史をもっているのかも知らないままそこに向かうことになった。Harbinに安重根義士の記念館があることをようやく思い出した。私の最大の関心分野が歴史ではなかったので、そのままHarbinに向かうことになった。

実は10年前展示のために一回、それから親しい作家の展示を手伝いに北京に行った時以外に他の地域に行ったのは初めてであった。

Harbinの初印象は韓国と大した違いがなさそうな景色に驚いた。高層ビルが韓国のようにたくさん建てられて町の様子も似たように見えた。しかし、より細かく観察してみると韓国との違いが見えてきた。韓国とは違い妙に屋根の飾りに気を使っている様子を個人的に感じたのだ。韓国式の私の目に慣れたマンションと違って、屋根をより派手に飾り、マンションの色相が茶色や少し彩度が低い色を好むことで韓国の白・明るい色とは違う点が目に入ってきたのだ。派手な屋根をじっくり見てみると美術の時間に学んだ柱の様式が見えてきた。神殿の柱の様式で一番体系的なドリア・イオニア・コリント・タスカン、これらの様式がHarbinの街並みのあちらこちらで見られる。最初は韓国とさほど違いがないと思っていた景色だったが、ここが中国かと思うぐらい異国的な感じを受けた。そして、その地域はロシアと近く、ロシアの影響を多く受けたところであるということが後で分かるようになった。そのためか、周りにロシア風の建物が多くあり異国的な感じだった。最初Harbinの中心地に向かうときは韓国と似たような

景色だったが、その中に入ると確実に中国的なものロシア風の建物でとても異国的に感じられた。都市の街並みを後にして、目的地であるHarbin工業大学の裏側のホテルに到着し、荷物を整理して私たちがセミナーをする近くのHarbin工業大学を回ってみた。釜山文化財団側で準備した今回のプログラムは釜山とHarbinとの交流が核心であるプログラムであったが、短時間に急いでHarbinを訪れたため、まず互いの準備が不足であったことを述べたい。私たちが前もって予定したプログラムはなぜかHarbin工業大学側にきちんと伝えられなかったようだった。釜山出身の作家たちとHarbin出身の作家たちの作品の世界を互いに見て話す予定だったが、意思伝達の問題だったかは分からないが、韓国で準備した釜山出身の作家たちのみの発表になってしまったところが一番残念だ。

私はそれにも関わらず、釜山出身の私が一番よく知っている作家たちの作品を彼ら自身の写真資料を見ながら説明するのを直接見たことにとっても感動した。チェ・ソクウン先生の説明は先生の絵のようにとても面白かったし、色々なストーリーがあり絵画が持つ見る味わいがあるいい作品であった。

そして、私が今年見た作家の作品の中で最も気に入った作家の作品はソン・ソンジン作家の移住民の痛みを語る『1坪すらも』の作品だ。SNS上でいくつか写真で何回か見たことある作品でもあったし、色々な作家たちが作品の中の空間に行ってきた後書きを読んだ。私はこの人の特性と人柄を長い間そばで見えてきた者としてソン・ソンジン作家が言わんとすることと彼の行動に信憑性があることを作品を通して知ることになった。あの『1坪すらも』の作品を韓国ではない中国のHarbinで彼の考えをきき、また彼が水の上にもっと詳しく言えば、潮干潟の上に建てた家に対する様々なパフォーマンスに対する映像と資料を見てセミナーに参加した教授らもまた、多くの関心を見せたことで、人生に対して思う感情・感性は大きく違いはないことにもう一度気付いた。私がこの人の作品があった京畿道のゼブドの潮干潟に設置された『1坪すらも』の作品を直接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悔しさがHarbinである程度解消され嬉しかった。

言語を通訳して伝えること、話者の思いを直接的にすぐ伝えるのには無理がある。話をした後には、すぐ聞き手に聞いた感想を伝えるものの意図や感情などが入り込みやすい。しかし、国によって価値観や感じ方、そして言語の正確な意味が話し手の思うままに簡単に伝えるには無理があると思う。

チェ・ソクウン先生の発表の後、私の番になり、作品の説明を始めたが、通訳の難しさを気になり、伝えやすく話すように心がけた。

実は、私の作品はそれほど難しくなく、物語中心の作品で、気軽にイメージ中心にした。最新作から過去の作品を流れで見せて、2008年作の『赤い熊』の場面が出てきた瞬間、通訳の方が笑顔になった。通訳者自身も笑ってはいけないことに気付いてすぐ表情を変えたが、私はこの通訳者の笑いの意味を知っていた。通訳者が私の作品を見て笑ったのは『赤い熊』で表現された「プーさん」を見て笑ったのだ。プーさんは中国で中国の最高リーダーでえあるシージンピンを象徴するからだ。あだ名とは、一人の人間に対するイメージを与えることだ。ハチミツのつぼを

もっているプーさんは2008年に制作された作品でアメリカをコスプレする中国を表現した作品であった。当時中国はチベットとの政治的な問題で世界的に話題になっていた時でもあった。中国を風刺したパンダをコスプレするプーさんを10年後の今日2018年にまた語ることになるとは想像もしていなかった。

中国は食事に誘われたお客さんのために量を多めに準備するという。実際に私たちは食事に誘われ食べきれないほどの量をみて驚いた。話には聞いていたが実際にはここまでとは。韓国の必要分だけ食べる文化と、中国の多めの料理をごちそうする文化の差をこの食事で実感した。韓国でもまだ私が幼い頃、家に来た近所の人に両親はいつも「一口でも食べてから帰ったら」という儀礼的な言葉をよくかけた。実際に食事をしていく近所の人を子供のころはよくみたが、最近になっては、他人に関心を持たない一人暮らしが増え「一人で暮らす」というテレビ番組が人気があるように、近所付き合いもなかなか見られなくなったのが韓国の現状である。同じ東洋圏の近くて遠い隣国の中国だが、Harbin地域の作家たちとその中国の作家の幼い頃の友達が韓国で自分の友達の友達が来たからといって、全てのスケジュールを手伝い、毎日共にしてくれたことは中国で過ごした5泊6日の間一番忘れられないことだと言える。



안중근의사 기념관
Ahn Jung-geun Memorial Hall

송성진

SONG SUNG JIN

Harbin, CHINA

2018. 9. 18. ~ 23.

개인전

- 2018 1평 조차(1坪 潮差) / 대부선감도앞 갯벌 / 안산
- 2017 postures /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 베를린 / 독일
- 2016 There / 스페이스 오뉴월-이주현 / 서울 외 다수

단체전

- 2018 도시의 상상 골목의 기억-오르다내리다 / 일맥문화재단 초량1925 / 부산
- 2018 적막한 고요와 짙은 해무사이 / 경기창작센터 / 안산
- 2017 카라치비엔날레 / 카라치 / 포마아트센터 / 파키스탄
- 2017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1999-2017 인식적 지도 그리기 / 부산시립미술관 / 부산
- 2016 홈그라운드 / 청주시립미술관 / 청주

Solo Exhibition

- 2018 1 pyeong house between tides / Tideland sungamdo / ansan
- 2017 Postures / Kunstlarhaus Bethanien / Gamany
- 2016 There / space O'newall_leejuheon / Seoul

Group Exhibition

- 2018 'CHORYANG1925 - Memories in Allery, Imagination of City_Ascend Descend'/ ilmac cultural foundation/ Busan
- 2018 Lonesome silence and heavy sea mist / gcc / ansan
- 2017 Karachi beinnal / Fomma Artcenter / Karachi / Pakistan
- 2017 Seoulllo Media Canvas / Manridong / seoul
- 2016 Home ground / chungju Museum of art / Chungju2013 Draw a Silk Road (Daegu mbc Gallery)



하얼빈 소피아성당
Harbin St. Sophia Church

하얼빈 스케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하얼빈이라는 도시. 우선 안중근의사, 그리고 하얼빈 맥주가 현대인에게 가장 알려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의 어느 대표 도시라고 하기엔 정보가 별로 없기에 그저 그런 작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도착해서 본 하얼빈은 지방도시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나 도시 형태가 어느 메트로폴리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2010년 기준 인구 천만의 도시 그곳에 가다.

짧은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하얼빈을 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도시가 가지는 특징은 어렵듯이 짐작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도시의 모습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본 하얼빈은 이때껏 접했던 중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가 뒤섞여 있는 듯 한 도시 분위기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겹쳐져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동남아시아의 도시 중 유럽의 제국주의가 만든 도시의 분위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작게나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맞닿아 있다는 점 그리고 청일전쟁, 러시아의 삼국간섭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느낌 들게 하는 이 하얼빈

실제로 하얼빈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창과 관계하여 만주지역 진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청일전쟁 이후 패배한 중국에 요동반도 반환과 차관공여 등의 도움을 주고 사실상 하얼빈 지배권을 가진 러시아는 만주,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를 잇는 [동청철도]를 건설하게 된다. 또한 철도 부속지라는 치외법권적 부지를 만들어 중국안의 새로운 러시아를 만들어냈다. 초창기에 이름도 없었던 촌락인 하얼빈은 이렇게 철도와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 또한 급속히 팽창한다. 러시아는 송화강을 인접하고 있는 하얼빈 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만들었고 건축은 유럽풍, 러시아풍으로 지어졌다.

중앙대로라고 불리는 하얼빈 최대 관광지인 이곳은 이 시기에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얼빈 신시가지는 외국인 비율이 중국인 보다 높았으며 중국인들이 다오와이, 푸자덴이라는 지구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중국 어느 도시와 다를 바 없는 도시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후 러일 전쟁으로 하얼빈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다시 중국이 탈환 또 다시 일본이 재탈환하는 전쟁의 상흔이 끊이지 않았다가 45년 소련에 의해 다시 해방되었다. 하얼빈은 중국 공산화 이후 보일러, 전기기계, 증기터빈 3대 공장을 중심으로 동력기계 공업, 방직, 화학 등의 공업도시로 특성화 되었다. 이 곳은 예전에 처음 만들어진 철도를 바탕으로 중국 동북지방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하얼빈 국제빙설제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세계3대 겨울축제로 알려져 있다. 또한 러시아 지배시기 다양한 외국인들의 영향으로 음악의 도시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哈尔滨素描

对于我们不陌生的城市哈尔滨。在现代人们中最为闻名的估计是安忠根义士和哈尔滨啤酒。但作为中国的代表性城市，却没有多少信息，以为是一般的小城市。但抵达后所见到的哈尔滨要称地方城市，论大小、城市形态与任何大都市相差无几。以2010年准，人口为千万的城市，我们前往了此地。

用短短一周的时间去了解哈尔滨虽不太可能，但可以琢磨到城市所特有的特征。说城市的模样是展现城市特性的指标不足为奇。我所见到的哈尔滨与之前所见的中国模样十分不同。

像混合了欧洲和俄罗斯以及亚洲的城市氛围，感觉重叠了许多历史。与东南亚城市中欧洲帝国主义所建的城市略有相同之处，但展现着完全不同的氛围。

可细微的预测此地临界俄罗斯，再者是在清日战争时期有俄罗斯的三国干涉的历史事件。感觉像依据某人的目的而形成的城市哈尔滨。

实际上，哈尔滨是俄罗斯帝国主义膨胀相关的满洲地区进军而生。清日战争以后给予辽东半岛返还和提供贷款等给战败的中国，拿到实质性哈尔滨支配权的俄罗斯建设了连接满洲里、符拉迪沃斯托克、西伯利亚的[东城铁路]。另外，还建立了“铁路附属地”的治外法权地，创造了中国内部的新俄罗斯。起初无名的村落哈尔滨就被俄罗斯开发而形成，人口随之急剧增长。俄罗斯以邻近松花江的哈尔滨站为中心建造了新的城市，建筑以欧

洲风格、俄罗斯风格来筑造。

称之为中央大陆的哈尔滨最大观光地也是这时期由俄罗斯建造。据说当时哈尔滨新城市外国人比例比中国人多，中国人大多居住在道外、傅家甸等地区。此处具有与中国任何地区相差无几的城市结构。之后因俄日战争，哈尔滨属于了日本，后期持续了再次偿还给中国而日本再夺去的战争，等45年被苏联给解放。哈尔滨在中国共产化以后以微波炉、电子机械、汽轮3大工厂为中心，特性化为动力机械工业、纺织、化学等的工业城市。此处以初次建设的铁路为基础，成为了中国东北地区的交通要害。而且俄罗斯支配时期受多种外国人影响，以音乐之城而闻名。

Harbin スケッチ

私たちににとって珍しくないHarbinという都市。まず安重根義士、そして Harbinビールが現代人に最も知られていると思う。しかし、中国を代表するある都市だというには情報が少なかったので、ただただ「小さい都市ではないか」と思ったが、到着して見たHarbinは地方の都市というにはその規模や都市の形態がどこかのメトロポリスともいえるぐらいだった。2010年基準、人口千万人の都市がそこへ向かう。

短い一周間という時間の間、Harbinを全部受け入れることには無理があったが、都市の持つ特徴は何となく分かる時間であった。都市の街並みはその都市の本当の状態性を表す地表ともいえる。私が見たHarbinはこれまで接した中国とは少し違った。

ヨーロッパやロシアそしてアジアが混ざっているような都市の雰囲気は歴史的に多くのものと重なって見えてくるような気がした。東南アジアの都市の中でヨーロッパの帝国主義が作った都市の雰囲気と似たようなところもあったが、全く異なった雰囲気を出していた。

少なくとも予測できたのは、ここが地理的にロシアと触れ合っている場所、そして日清戦争、ロシアの三国干渉があったという歴史的な事実だ。誰かの目的によって作られたところといった雰囲気を出してるこの Harbin。

実際に Harbinはロシアの帝国主義の膨張と関わり満州地域への進出と共に始まったといわれる。日清戦争以降、敗北した中国に遼東半島の返還と借款供与などの助けをしている事実上、Harbinの支配権を持ったロシアは満州、ウラジオストク、シベリアを繋ぐ「中東鉄道」を建設することになった。また、鉄道は付属地という治外法権的な敷地を作り中国の中の新たなロシアを作り出した。最初は名前もない町であったHarbinはこうして鉄道とロシアの人々によって作られ開発され、これによって人口もまた急速に増えた。ロシアは松花江に隣接している Harbin 駅を中心に開発され、建築はヨーロッパ風、ロシア風で作られた。

中央大路と呼ばれる Harbin最大観光地であるこの場所は、この時期にロシアによって作られた。Harbinの新市街地は外国人の割合が中国人より高く、中国人がダオワイ・プザデンというところに住んだといわれている。ここは中国のどの都市とも違いのない都市の構造で構成されている。以降、日露戦争でHarbinは日本の手に入れられて、また中国が奪還、再び日本が再奪還するような戦争の連続で、45年にソ連によりやっと解放された。

Harbinは中国の共产化以降、ボイラー、電気機械、蒸気タービン3台工場を中心に動力機械工業、紡織、化学などの工業都市に特性化された。ここはかつて最初に作られた鉄道をもとに、中国の東北地方の交通の中心地でもある。また、Harbinの国際冰雪祭は規模と内容面で世界3大冬祭りとして知られている。また、ロシアの支配下で様々な外国人の影響で音楽の都市としても有名だ。

하얼빈 사범대학, 미술대학

하얼빈에 도착한 부산작가들술은 하얼빈 미술대학에서 작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또한 양국의 미술에 대한 이해와 교류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작가들만 하얼빈 대학의 교수진 앞에서 작업소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 미술대학 교수들은 작품에 대한 감상과 하얼빈 대학의 소개를 진행했다.

하얼빈 사범대학의 규모는 꽤 크다고 한다. 학부생 3,000명 대학원생 400명 교수진만 해도 200명이 넘는 숫자라고 한다. 전 학과에는 박사과정이 있고 대학 순위는 전국 10위권 이내라고 얘기를 들었다.

발표를 통해 한국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또한 동시대의 미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미술에 대해 자유예술과 주류예술로 나눠 설명했다. 주류예술은 학원예술 즉 강의실 및 대학에서 하는 미술, 그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예술, 작품 안에서 문화의 정신을 가르치는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중국의 정체성을 갖는 전통예술과 하나는 자유예술 소위 현재 중국 현대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예술이 있다고 했다. 둘 다 공존해야 하는 필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교류가 있기를 희망했다.

짐작하건데 현재 하얼빈 미술과 현대미술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학교 앞 화방과 도시안의 화랑에서 느꼈던 것은 하얼빈은 전통미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경제력과 교육의 발전, 개인의 자유에 비례하여 그 곳에 문화는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리하여 거의 대부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권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은 거의 비슷하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전통예술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특징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는 듯하다. 북경, 상해 등 몇몇 도시는 현대를 선도하는 아방가르드적 예술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지역이나 변방의 도시에서는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예술만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국가에서 조차 시대의 미술이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다.

哈尔滨师范大学·美术大学

抵达哈尔滨的釜山画家们预计在哈尔滨美术大学进行作业相关发表，并希望有对两国美术的理解和交流的时间。但在这次研讨会上只有韩国的画家们在哈尔滨大学教授面前进行了作业介绍。发表结束后，美术大学教授们发表了对作品的感想，并介绍了哈尔滨大学。

据说哈尔滨大学的规模比较大。本科生3000名、研究生400名，教授也过200名。所以学科都有博士课程，大学排名全国10名以内。

说通过发表，对韩国现代美术和同时代美术欲进行了解。然后对中国美术分为自由艺术和主流艺术来进行了说明。主流艺术是学院艺术，即在教室及大学里所做的艺术，继承传统的艺术，在作品中教文化精神的艺术。即继承及发展传统，具有中国特性的传统艺术和自由艺术，即所谓中国现代美术的、具有多样方向性的艺术。强调了二者有共存的必然性。并且希望能有持续的交流。

我估计现在的哈尔滨美术和现代美术有些差异。在学校门口的画舫和市内的画廊所感受到的是哈尔滨以传统美术为基础。一般情况下，文化比列为经济力和教育的发展、个人的自由而在当地成长并发展。所以绝大部分东南亚、西南亚国家所展现的现象几乎相似。落后于时代发展或固守传统艺术的倾向较多。

这种现状在中国好像按地区出现不同的情况。北京、上海等几个城市是先导现代的前卫艺术影响着世界，但地区或边防城市只有充满固守过去传统的艺术。连在同一个国家都无法共有时代的美术。

Harbin 師範大学、芸術大学

Harbinに到着した釜山作家たちはHarbin美術大学で作業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し、両国の美術に対するの理解と交流の時間をもつことにした。しかし、今回のワークショップでは韓国の作家だけがHarbin大学の教授の前で作業の紹介を行った。発表以降、美術大学の教授らに作品に対する感想を聞いたり、Harbin大学の紹介をしてもらった。

Harbin大学の美術大学の規模はかなり大きいと言われている。学部生3,000人、大学院生400人、教授も200人を超える数だという。すべての学科には博士課程があり、大学順位は全国10位以内だそうだ。

発表では韓国の現代美術に対する理解と、同時代の美術に対する理解について説明した。そして、中国の美術について自由芸術と主流芸術に分けて説明した。

主流芸術は学院芸術、つまり講義室または大学で行われる美術、そして伝統を引き継ぐ芸術、作品の中で文化の精神を教える芸術だと説明した。つまり、伝統を引き続き発展させながら中国の独立性をもたらし伝統芸術と、もう一つは自由芸術、すなわち現在の中国の現代美術ともいえる様々な方向性をもった芸術があると語った。どちらも共存すべき必然性があると強調した。また、多くの交流があるように願う。

現在のHarbin美術と現代美術には違いがあるようだ。学校の前の画室や都市の中のギャラリーで感じたことはHarbinの伝統美術を基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一般的に文化は経済力と教育の発展、個人の自由に比例して成長し発展する。そのため、東南アジア、西南アジア圏の国家で見られる現象は似ている。時代遅れになるか、伝統芸術だけを求める場合が多いのである。

中国はこのような特徴が地域ごとに分かれるそうだ。北京・上海などいくつかの都市は現代をリードするアバンギャルド的芸術が世界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が、地域や辺境の都市では過去の伝統だけを求める芸術だけがあふれているのだ。同じ国家ですらも時代の美術が共有されていないのだ。



하얼빈공과대학 박물관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Museum



인공위성
Satellite

하얼빈 공업대학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이후 하얼빈 공업대학의 박물관을 가게 되었다. 하얼빈 공업대학은 정부지정 중점대학이며 정부 및 시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다. 그러선지 이곳의 분위기는 어느 하얼빈의 느낌과는 다르다. 딱하니 자리 잡은 인공위성 하나만으로도 이 대학의 위상이 나타나는 듯하다.

哈尔滨工业大学

短暂的相遇后，我们访问了哈尔滨工科大学的博物馆。哈尔滨工业大学是政府指定的重点大学，并得到市政府的巨大支援。不知是否因此，此处的氛围不同于其他哈尔滨。坐落于校内的人工卫星似乎代表着大学的威望。

Harbin工科大学

短い出会いの後に、Harbin工科大学の博物館を訪問することになった。Harbin工業大学は政府指定の重点大学であり、政府及び市の莫大な支援を受けている。そのせいか、ここの雰囲気はどのHarbinとも違う。誇るかのように位置している人工衛星一つだけで、この大学の位相が現れるようだ。



731 부대
731 Military Unit

731 부대

일본 제국 육군 소속 관동군 예하 비밀 생물전 연구개발기관으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에 있던 부대이다. 공식 명칭은 관동군 방역급수부이다. 731부대는 일제가 세운 생물전 연구기관 중 하나였으며 지역 민간인, 중국인, 한국, 러시아 인등이 실험에 쓰여지고 죽임을 당했던 곳이다.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었지만 그 현장을 그리고 유물들을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이 패망할 때 이 모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람과 시설 모든 것을 죽이고 파괴하고 묻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후 군사재판에서 생체실험 문제가 언급되었으나 미국이 실험 자료를 넘겨받고 처벌치 않고 보호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일부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를 묵인하고 철저한 반성을 하지 않았던 힘있는 자의 순환고리는 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인지 현재 또한 그렇지 않은가? 중국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 한국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 라는 쓸쓸한 생각들이 교차하는 장소 731 부대.

731部队

为日本帝国陆军 部署 关东军 所属机密 生物战 研究开发机构 · 位于 中国 黑龙江省 哈尔滨的部队。官方名称为 关东军防疫给水部队。731部队是日帝设立的生物战研究机构之一 · 当地平民、中国人、韩国人、俄罗斯人等使用与实验并被扼杀的地方。虽以历史事件有所认知 · 但头一次亲眼所见其现场和遗物。令人震惊的是, 日本战败时,为了掩盖所有的事实,杀死了所有的人并破坏了所有设施,试图将其毁灭。此后,在军事裁判中提到了生物实验问题,但美国接收了实验资料,并对其进行了保护而不受处罚。此外 · 日本仍然不承认他们的一些令人发指的罪行。

默认过去并不进行反省的有力之士的循环环节为什么不断地继续下去 · 而现在不也正如此吗?中国也既是受害者也是加害者,韩国不也是吗?等等落寞的想法交叉的地方731部队。

731部隊

日本帝国陸軍隊所属関東軍の元秘密生物戦研究開発機関で、中国の黒龍江省Harbinにあった部隊だ。公式の名称は関東軍防疫給水部である 731部隊は日本帝国が立てた生物戦研究機関の一つであり、地域の民間人、中国人、韓国人、ロシア人などが実験に使われ殺されたところだ。歴史的事実として知ってはいたが、その現場をそして遺物を実際に見るのは初めてだった。衝撃的だったのは、日本が敗亡するとき、全ての事実を隠すために人や施設すべてを殺し破壊して埋めつぶしたことだった。以降軍事裁判で生体実験問題が提議されたが、アメリカが実験の資料を受け取り処罰せず、保護したと言われている。また、日本もいまだにも彼らの一部残酷な犯罪行為を認めていない。

過去を黙認し、徹底的な反省をしなかった権力者はなぜ限りなく続いているのか、また現在もそうではないか?中国もまた被害者と加害者の様子、韓国もそうではないか?という思いが浮かんだ731部隊。



731부대 죽은나무
731 Military Unit Dead Tree



731부대 내부
731 Inside the Unit



아티스트 토크_라운드테이블
Artist Talk _Round Table

각 도시의 이해와 문화교류

생각했던 도시와는 매우 다른 하얼빈.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생각해본다. 이질문화의 상호이해와 현대를 보는 다양한 시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예술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또한 문화적 불모지라고 볼 수 있는 이 하얼빈에 교류를 통해 각국의 예술이 도시민의 한걸음 밝혀주는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各城市的理解和文化交流

与想象有较大差异的哈尔滨。想象着如果在共享和理解过去和现在的理念上达成文化交流该多好。我希望通过分享对异质文化的相互理解和现代性的各种观点来实现艺术交流。此外，可看作是文化荒地的这座城市哈尔滨，通过交流，我预想会成为各国艺术可照亮市民的文化平台。

各都市の理解と文化交流

考えとは違った都市Harbin。過去と現在を共有し、理解する次元で文化交流が行われれば思う。異なる文化の相互理解と現代を見る様々な視点を共有することで芸術交流が行われるよう願う。また、文化的不毛の地とも見られるこのHarbinとの交流で各国の芸術が都市民の一面を照らす場にもなれると思う。

조정현

CHO JUNG HYUN

Harbin, CHINA

2018. 9. 18. ~ 23.

개인전

- 2017 Amor Party, 이연주갤러리, Busan
- 2015 QR Code 페허 전시, 해운대 아트센터, Busan

그룹전

- 2018 Halli!, Hallo!, Hallole!, Atelierfrankfurt, Germany
확장적 회화展 : 누가 회화의 죽음을 선언했는가?, 석당미술관, Busan
울산아트프로젝트 : WAVE, 울산문화의 거리, Ulsan
- 2017 Project Art Busan, (구)고려제강 F1963, Busan
-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 <Sensible Reality>, 서울시청, Seoul
서교예술실험센터 : 쉼어 프로젝트, 서교예술실험센터, Seoul

Solo Exhibition

- 2017 Amor Party, Lee yeon-ju gallery, Busan
- 2015 QR Code Ruin Exhibition, Haeundea Art Center, Busan

Group Exhibition

- 2018 Halli ! Hallo ! Hallole !, Atelierfrankfurt e.V., Germany
- 2018 Extensive Painting : Who said Painting died?, Seokdang Museum, Busan
- 2018 Ulsan Art Project : WAVE, Ulsan Culture Street, Ulsan
- 2017 Project Art Busan, F1963, Busan
- 2016 Sensible Reality, Seoul City hall, Seoul
Share Project, Seog-yo Art experiment center, Seoul



하얼빈을 처음으로 방문하다.

〈유랑, 빛나는 동방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부산-하얼빈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국은 방문(베이징, 상하이)을 해보았지만, 하얼빈은 첫 번째 방문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중국 방문을 기억하며 하얼빈에 도착했다. 하얼빈의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이전의 중국방문을 했을 때, 공항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지만, 하얼빈은 큰 무리 없이 공항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따뜻했던 가을 햇살도 하얼빈의 첫 이미지에 한 몫을 했던 것 같다. 우리가 처음 방문했던 곳은 하얼빈의 대학 본부였는데, 정말 멋진 건물이었고, 학교의 부총장님께서 나와 우리를 반겨주었다. 올해 부산-하얼빈 간의 교류에서 하얼빈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얼빈의 첫 이미지를 좋게 남긴 이 후,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하였는데, 하얼빈 일정에서 기억남는 것 하나는 러시아 건물 양식으로 된 거리였다. 상하이에서 서양식 건물을 본적은 있지만, 하얼빈의 건물들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初次访问哈尔滨。

参加了<流浪·闪烁的东方之路>为名进行的釜山-哈尔滨国际交流项目。之前访问过中国北京、上海，因哈尔滨是头一回，记起着之前的访问记忆抵达了哈尔滨。哈尔滨的第一印象还算可以。之前访问中国时，因机场人太多而费劲的记忆，但哈尔滨机场可相对好通过。并且，及其温暖的秋天的阳光也添加了好的印象。我们首先访问的是哈尔滨的大学本科部，是座非常酷的建筑物，学校副校长亲自接待了我们。对今年的釜山-哈尔滨之间的交流中我能感受到哈尔滨一方也很用心。对哈尔滨留下好的第一印象后，进行了一系列的日程，此日程中印象最为深刻的是俄罗斯建筑风格的街道。在上海见过西方风格的建筑，但哈尔滨的建筑另有别味。

Harbinを初めて訪問する。

『流浪、輝く東方の道』のタイトルで行われた釜山-Harbinの国際交流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中国は北京・上海などを訪問したことはあったが、Harbinは初めての訪問であったので、以前の中国の訪問の記憶をたどりながらHarbinに到着した。Harbinの初印象は悪くなかった。以前の中国訪問は、空港に人が多すぎて苦労したが、Harbinは簡単に空港を抜け出すことができた。そして、暖かい秋の日差しもHarbinの肯定的な初印象に一役買ったと思う。私たちが初めて訪問したところはHarbinの大学本科部であった。本当に素敵な建物で、学校の副総長が直々に私達を迎えてくださった。今年釜山-Harbinの交流でHarbin側でも大変気を遣ってくれたような印象を受けた。Harbinでのいいイメージを保ったまま、色々なスケジュールが行われたが、Harbinの日程で記憶に残る一つはロシア風建物様式になっている通りであった。上海で西洋式の建物は見たことはあるが、Harbinでの建物はまた違う感じがした。

하얼빈의 문화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얼빈 사람들의 문화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현지 코디네이터의 지인을 여럿 만났는데,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친절하게 해주었다. 그 덕분에 하얼빈의 전체 일정이 풍족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코디네이터분께 “어떤 관계이시면 이렇게 잘해주시나요?”라고 물었더니, 여기 사람들은 손님들 대접을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놀랐다. 하얼빈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도 상대방의 차가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계속 따라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손님을 대할 때, 부족한 대접을 하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다.

哈尔滨的文化

另一个令人难忘的是哈尔滨人的文化。在此次项目中,我见到了很多当地协调员的朋友,他们的盛情款待使我们不知所措。多亏他们,在哈尔滨的整个日程留下了丰盛幸福的回忆。因为太亲切,我问了下协调员“什么关系会给予此种亲切?”。他的这儿的人都这么接待宾客的回答使我非常惊讶。哈尔滨人连喝茶的时候也注视着对方的茶,只要喝完就继续续杯的文化。

虽不知详情,对待客人时,似乎认为待遇不足是失礼的。

Harbinの文化

もう一つ記憶に残るのはHarbinの人々の文化である。今回のプログラムで現地のコーディネーターの知り合いと出会ったが、驚くほど親切にしてくれた。そのおかげでHarbinでの全体的なスケジュールが豊かで面白かったと記憶している。あまりにも親切にしてくれたので「どんな間柄だったら、こんなに親切にしてくれるんですか?」と聞いてみたら、この人々はお客さんならみんなこのようにすると言われ驚いた。Harbinの人はお茶を飲む時にも、相手のお茶が足りなくなるのをチェックしてごちそうする文化があるという。その理由を詳しくはしらないが、

お客を対するとき、足りないが失礼だと思っているようだ。



잔이 비면 계속 따라주는 중국의 차 문화
中国的茶文化：茶杯一空就继续续杯
中国のお茶文化：茶碗が空いたらリフィルする



하얼빈 미술관: 벽이 붉은색으로 칠해져있는 모습
 哈尔滨师范大学: 美术学院相关人员说明作品
 Harbin美術館: 赤い壁になっている様子

하얼빈 미술관

하얼빈에는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많지 않았다. 우리가 갔던 미술관에서는 한중일 국제교류 전시가 열려 있었는데, 전시자체는 한국에서 보았던 한중일 전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미술관이 빨간색의 벽을 사용하고 있었다. 보통 화이트의 벽면을 사용하는데, 빨간색 전시장의 벽을 사용하고 있어서 놀랐다. 벽면이 평면작품을 보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딱히 방해되거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품의 필력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았다.

哈尔滨美术馆

哈尔滨没有多少美术馆或画廊。我们去的美术馆里正举行着了韩中日国际交流展览,展览本身与韩国的韩中日展览没有太大区别。美术馆使用了红色的墙壁。通常使用白色的墙面,但因其使用红色的墙壁使我感到很吃惊。我认为墙面会妨碍平面作品,但没有怎么觉得妨碍作品。反而觉得作品的笔力更好地传递给观赏者。

Harbin美術館

Harbinには美術館やギャラリーが多くはなかった。私たちが行った美術館では韓・中・日国際交流展示が行われていたが、展示自体は韓国で見た韓・中・日展示と違いがなかった。美術館の壁が赤かった。普通ホホワイトの壁を使うが、赤い壁をしていて驚いた。壁側が平面作品を見るのに邪魔になると思ったが、別に邪魔になったりしなかった。むしろ、作品の筆力がもっとよく感じられるようだった。

하얼빈 대학에서의 작품교류

하얼빈 대학에서 미술 관계자들과 작품 발표로서 교류를 했는데, 이번 교류 프로그램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되면서 가장 걱정되고 신경썼던 부분이었다. 최석운 작가님, 변대용 작가님, 송성진 작가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앞서 작가님들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하얼빈 작가들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의 발표차례가 되어 발표를 하는데, 내 작품에 중국 작가들이 흥미로워했던 점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QR Code작업 이었다. 한국에서는 QR Code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일반화 되었다고 하기는 사람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QR Code폐허라는 이름의 전시를 열게 되었고, QR Code를 소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였는데, 하얼빈에서는 길가던 포장마차도 QR Code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가질 정도로 QR Code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얼빈에서 초대해주시면 QR Code작업을 하겠다고 웃고 넘어가기도 하였다. 그들이 또 하나의 흥미로워 했던 점은 일반적인 소재들을 작업으로 소화한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구두로 작업을 한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이게 어떻게 예술인지 이해가 안가서 통역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어서, “나도 예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구두가 예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고, 예술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 해드렸더니 웃으면서 통역해주셨다. 발표에서 나온 두 가지 에피소드는 하얼빈에서 가져온 가장 큰 공부가 된 것 같다.

在哈尔滨大学的作品交流

在哈尔滨大学与美术相关人士以作品发表形式进行了交流·此为这次项目中最重要内容。我个人也是参加此项目时最担忧且特别花心思的就是这部分。以CHOI SHUK WOON画家、BYEN DEA YONG画家、SONG SUNG JIN画家顺序进行了发表·先前的发表都很顺利·哈尔滨画家们也很感兴趣。到我顺序发表时·在我作品中中国画家们感兴趣的有两部分。QR Code作业。在韩国使用QR Code的机会甚少·要说已普及·人们的活用度也较低。所以开展了QR Code废墟知名的展示会·并宣言了使用QR Code素材。但在哈尔滨·QR Code活用度极高·连经过的小吃摊也使用QR Code来结账系统。所以开玩笑说如果哈尔滨邀请我·我就展开QR Code作业。他们又一次感兴趣的是,我把一般的素材升华为作业题材。正在说明口头作业的作品时·翻译人员说不明白这怎么会成为艺术而无法翻译时·我说“其实我也不知道什么是艺术。只不过是表现了口头成为艺术的方法是什么·我也是提问什么是艺术的人之一。”翻译人员随即笑着进行了翻译。在发表中提出来的两个小插曲是从哈尔滨带来的最大的收获。





송화강이 보이는 풍경
Scenery of the Songhua River

Harbin大学での作品交流

Harbin大学で美術関係者たちとの作品発表として交流を行ったが、今回の交流プログラム中で一番重要な内容であった。個人的にもこの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て一番気になったところであった。チェ・ソクウン作家、ビョン・デヨン作家、ソン・ソンジン作家の順番で発表が行われ、作家の発表が順調に行われた。Harbinの作家も興味深く見てくれた。そして私の番になって発表をしている時、自分の作品に中国の作家が深く興味を示した二つの点がある。一つはQR Code作業であった。韓国ではQR Codeを使う場合は多くなく、一般化するには人の使用頻度がとても低いほうである。だからこそ、QR Code廃墟という名の展示を開くことになって、QR Codeを素材にしないと宣言をしたが、Harbinでは屋台ですらQR Codeで支払えるシステムがあるほど、QR Codeの活用度がとても高かった。なので、冗談でHarbin側から招待して下さったらQR Codeの作業をしますと笑ったこともあった。彼らが深い興味を示したもう一点は、一般的な素材を作業で行うことであった。靴で作業をした作品を説明していたが、通訳の方がこれがどうして芸術的であるか理解できなくて通訳できないと言うので、「私も芸術とは何なのかよく分かりません。ただ、靴が芸術になれる方法には何かあるのかに対して表現しただけで、芸術とは何か質問する人のうちの1人であります。」と話したら、笑顔で通訳してくれた。発表からでの二つのエピソードはHarbinから持ち帰った一番重要な勉強である気がする。



아티스트 토크_라운드테이블
Artist Talk _Round Table

프로그램 이후 계획

처음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을 때, 경력이 많은 작가들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 조금은 걱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청년작가(35세 이하)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경력이 많은 작가와 함께 했을 때, 마찰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진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들은 서로를 존중해주었고, 넓은 폭의 대화들이 오고 갔다. 젊은 작가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청년작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 고려해 토론해 보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작품 제작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취하려 한다. 하얼빈의 시장에서 구경하다가 발견한 동으로 만들어진 사슴이 있었는데, 내가 이전에 작품으로 쓰려고 했던 박제 사슴과 모양이 너무 비슷하여 구매하게 되었다. 두 가지 오브제는 하얼빈에서 영향을 받는 작품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얼빈에서 있었던 자유로운 대화에서 작업의 소스도 얻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작업에서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하얼빈에서 이야기하고 경험했던 기억들을 배경으로 부산에서 부산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가지려고 한다.

项目结束后计划

首次参加项目时,听说与经验丰富的画家们一起进行讨论,让我稍有担心。其理由是,在青年作家(35岁以下)之间进行节目时,与有经验的作家一起进行,预计会产生很多摩擦。但是这次项目之后,想法完全改变了。参加此次节目的作家们互相尊重对方,进行了广泛范畴的对话。在这里解决了年轻作家之间无法解决的故事。以这样的经验为基础,了解到多种年龄段的作家们组成项目的魅力,今后青年作家们策划新节目时将考虑并会进行议论。不仅如此,在制作作品方面也要采取新的方式。我在访问哈尔滨的市场时发现了一只用铜制成的鹿。因为其模样与我之前想用作品的剥制鹿极其相似而购买了它。

我相信这两件物品将会重新诞生为在哈尔滨受影响的作品。在哈尔滨的自由对话中,也得到了工作源,对今后的工作将会产生很大的影响。以在哈尔滨聊天的记忆为背景,想要在釜山经历以釜山的方式解决问题的过程。

プログラム以降の計画

初めて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とき、素晴らしい経歴を持つ作家と共にと言われて、少なからず緊張した。その理由は、青年作家(35歳以下)の間でプログラムを行ったとき、経歴の長い作家と共にした場合、摩擦が多く発生すると予想したからだ。しかし今回のプログラム以降考え方が完全に変わった。今回の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作家は互いを尊重し、幅広い会話が行われた。若い作家同士で解決できないことをここで解決したりもした。このような経験をもとに、幅広い年齢層の作家たちが、プログラムを構成することに魅力があることを知ることになり、これからも青年作家たちが新たなプログラムを考える場合を念頭に置いて語り合いたいと思う。それだけではなく、作品制作にとっても新たなやり方をとってみたいと思う。Harbinの市場で発見した銅で作られた鹿があるが、私が以前に作品として使おうと思っていた剥製の鹿と姿が似ていて買うことにした。二つのオブジェはHarbinで影響を受けた作品として再誕生することになると思う。Harbinであった自由な会話の流れで作業のソースも得ることになったが、これからの作業に多くの影響を与えたいと思う。Harbinで語り経験した記憶をもとに、釜山で、釜山のやり方でやってみたいと思う。



중국의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동으로 만들어진 사슴
中国传统市场和在传统市场购买的铜来制造的鹿
中国の伝統市場とそこで買った銅で作られた鹿

니시지마 나츠미

NISHIJIMA NATUMI

Busan , KOREA

2018. 9. 1. ~ 30.

Solo Exhibition

2018 Leave It as the Adolescence is Over / ge-Shuku (Ishikawa)

Group Exhibition and Curated Exhibition

2013, 2015, 2017 Kanazawa Sculpture Festival (Ishikawa)

2014 Drawing Exhibition / Galleria Ponte (Ishikawa)

Toikakeru-Bi 2014 / Toiyamachi Studio (Ishikawa)

《 》and《 》/ Hokuriku Bank, Kanazawa Central Branch Office
(Ishikawa)

2018 A Graduate Exhibition Selected by ARTGUMMI /
Kanazawa ARTGUMMI (Ishikawa)

나시지마 나츠키 NISHIJIMA NATUMI



나는 내 자신의 젠더적인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작품에 반영하여 제작을 하고 있다. 여성의 신체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인지하는 성은 남성과 여성의 중간이다. 성과 그 외의 여러 사항의 모호함을 표현하는 것과 사람이 가진 스테레오 타입을 밝혀내는 것을 시험해 보고 있다.

작년에는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몇 장인가 찍었다.

“후리소데 사진”에서는 부모님과 할머니를 사진관으로 모셔, 6년 전에 참석하지 않았던 성인식*을 흥내내어 후리소데*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 당시 부모님은 이미 이혼했으며, 우리는 호적상의 가족이 아니다. 더욱이 나는 이제 20세가 아니고, 여성복을 입고 있다. 이상한 점 투성이지만, 이 사진 형식으로 담아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생긴다. 이 작품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각자와의 대화를 인쇄하여 함께 전시했다. (*성인식: 만 20세인 사람들을 모아 격려·축복하는 행사. 여성은 주로 후리소데라고 불리는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는다.)



“후리소데 사진” 믹스트 미디어 (2017년)



옛 가족이 가족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모아 사진을 찍기로 했다.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지인을 모아(내가 처음 만난 사람도 있었다) 가족인 척하고 사진관에 가서 촬영했다. 모든 사진에 내가 찍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감상자가, 이 가족이 유사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장치이다.



가족사진 (2017년)

이번 레지던시 즈음하여, 사전에 인터넷에서 한국 LGBTQ 상황을 찾아보았다. 부산에는 Queer Culture Festival이라고 불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작년부터 개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기사를 읽어보니 놀랍게도 페스티벌에 반대하는 단체가 대규모로 방해했다고 한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반동성애를 외치는 많은 사람이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를 하는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페스티벌 참가자와 반대파, 그들과는 “가족사진”을 찍을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언뜻 보기에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만약 진짜 가족이나 친구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공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이 사진으로 가시화하려고 생각했다. 물론 위험이 동반된다는 것과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

반대 단체와 연락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부산문화재단 측에서 기자를 통해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해 주었으나, 기자로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신 Queer Culture Festival 주최자들과 만날 기회를 마련해 주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유익했다. 그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나에게 마음을 열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한국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상황, 작년 페스티벌에 대해, 반대파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성적소수자인 것이 원인이 되어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당사자도 있었다.

멤버 중에 한 명이 소속된 대학의 LGBTQ 동아리 스티커를 줬다. LGBTQ를 상징하는 6색의 무지개와 칼과 방패가 디자인된 스티커였다. 이 무지개의 본질은 역시 투쟁이라고 느꼈다. 레인보우 플래그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리고 소멸될 때까지 아직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9월 말까지 부산에서 체재할 예정이었으나, 10월 6일에 Queer Culture Festival이 개최된다고 하여 특별히 흥티아트센터에서의 체재를 연장해 주었다. 부산의 LGBTQ와 반대 운동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대형 태풍으로 인해 페스티벌은 연기되었고, 결국 참가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꼭 개인적으로 방문해보려고 생각한다.

흥티아트센터에서 내가 체재한 방과 스튜디오 앞에는 한글로 니시지마 나츠미라고 쓰여 있었다. 일본어, 특히 히라가나로 된 내 이름이 여성적이어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진 이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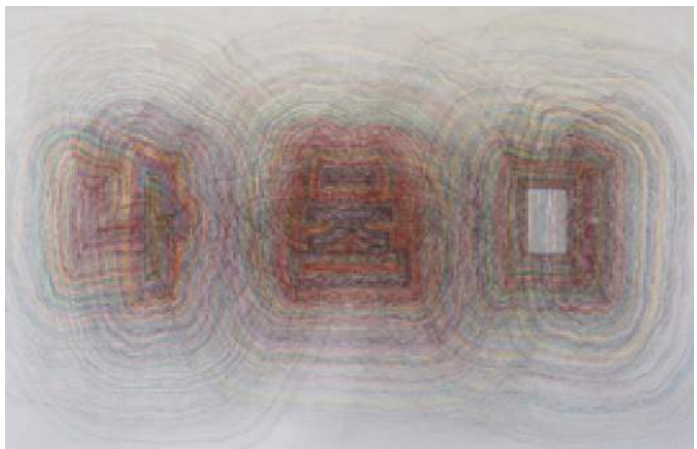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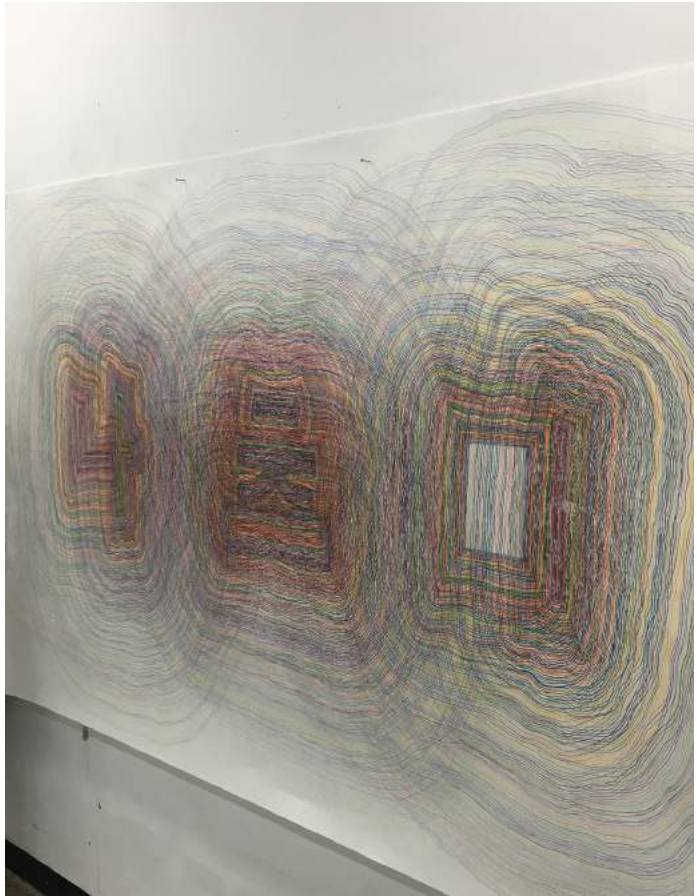
올해 일본 가나자와에서 개최한 개인전에서 “Mr. & Ms. Pictogram”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갤러리 벽과 주로 화장실에 사용되는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픽토그램을 그리고 관람객에게 그 윤곽의 바깥 면을 따라 그리게 한 것이다. 기호의 의미가 점점 모호해졌고,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선의 집합체가 되었다.

이를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해 볼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되어, 벽에 종이를 붙이고 한글로 나츠미라고 썼다. 근처 문구점에서 구입한 마커로 이를 따라 그리며 선끼리 복잡하게 교차시키고, 더 이상 그리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까지 계속했다. 픽토그램 작품과 기본적으로 같은 기법이었지만, 이번 드로잉은 기호가 가진 의미를 추상화하면서도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는 인상도 있었다. 확장되어 가면서 잉크를 다 써서 사라져간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기호와의 대화는 스스로를 객체화 해 가는 프로세스 같았다.

전시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오픈 스튜디오 시기에 기회를 얻어 과거 작품과 부산에서의 작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의견과 감상을 들을 수 있는 무척 귀중한 기회였다.

체재 중에는 부산과 광주, 두 개의 비엔날레를 볼 수 있었다. 모두 주제가 무척 정치적이어서, 일본 사회와 예술계와의 차이를 확실히 느꼈다.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고, 예술의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광주에서는 부산문화재단의 관계자와, 부산에서는 레지던시의 각국 작가들과 동행했다. 이러한 투어를 준비해 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게다가 작가끼리 교류도 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My Name #001" 벽에 마커 (2018년)

광주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인터랙티브한 영상 작품과 홀로그램 등의 체험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따또가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어, 중앙동을 방문해 보았다. 많은 작가들이 주거와 스튜디오, 전시회장을 확보하여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고 있었다. 이 규모로 작가를 지원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얼마되지 않을 듯하다. 부산광역시에서 예술에 힘을 쏟는 것이 훌륭했다. 아쉽게도 비엔날레 시기라는 점도 있어, 현지에서 전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체재 중인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안내받았다.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있었고, 각각의 스튜디오는 쾌적해 보였다. F1963 전시 오프닝에서 출품 중인 작가이자 다음 달에 가나자와에 체재하는 엄정원 작가와 만날 수 있었다. 그 후 몇 번인가 이야기하는 중에 서로의 작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녀가 가나자와에 체재하는 동안 공동 제작을 하게 되었다. 나는 기호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드로잉을 하고 그녀는 동영상 촬영·편집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둘 다 처음 해 보는 기획이었다. 가나자와에서 그녀의 개인전 첫째 날 퍼포먼스와 라이브 방송을 했다.

나는 오로지 드로잉을 하고 그 모습을 내 가슴에 매단 카메라로 방송했고, 그녀는 여러 대의 카메라와 컴퓨터를 사용해서 촬영, 편집, 방송, 전시장 벽에 프로젝션을 했다. 서로의 동작, 영상, 그림, 소리, 감상자가 상호 작용을 해서 개인 작품에서는 불가능한 신비로운 공간을 형성했다. 장소로 사용된 토이아마치 스튜디오에는 가나자와에서 그녀와 알게 된 사람들,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방문하여 제각각 즐겼던 것 같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부산과 가나자와에 체재한 우리가 공동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무척 자극적이었다. 이번에 나를 받아들여 준 분들은 무척 친절했고, 전력을 다해 서포트 해 주어 매우 감사했다. 부산문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나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받아들여 주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화(꿈틀꿈틀 대화)” 퍼포먼스 2018년, 촬영: 마키시마 다이라



“Mr. & Ms. Pictogram” 벽에 마커 (2018년)

私は私自身のジェンダー的問題、それを取り巻く環境を作品に取り入れて制作を行っている。女性の身体で生まれたが、自認する性は男女の中間といったところで、性やその他諸々の事柄の曖昧さを表現することや、人間が持っているステレオタイプを炙り出すことを試みている。昨年は写真館で「家族写真」を何度か撮った。“振袖の写真”では、両親と祖母を写真館へ呼び、この6年前に参加しなかった成人式*を模し、振袖*を着て写真を撮った。当時、両親は既に離婚しており、我々は戸籍上の家族ではない。さらに私はもう20歳ではなく、女性の衣服をまとっている。おかしなところだらけなのだが、この写真の形式に収まると、ある程度の説得力を得てしまう。これは、父、祖母、母、それぞれとの対話を印刷したものと共に展示した。（*成人式：20歳の人々を集め、激励・祝福する行事。女性は主に振袖と呼ばれる着物を着る。）元家族が家族に見える。そこで次に、家族ではない人を集めて写真を撮ることにした。それぞれ面識のない知人を集め（私自身、初対面の人物もいた）、家族のふりをして写真館へ行き撮影した。全ての写真に私が写っ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鑑賞者は、この家族が擬似のものであることを悟るという仕掛けである。

元家族が家族に見える。そこで次に、家族ではない人を集めて写真を撮ることにした。それぞれ面識のない知人を集め（私自身、初対面の人物もいた）、家族のふりをして写真館へ行き撮影した。全ての写真に私が写っ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鑑賞者は、この家族が擬似のものであることを悟るという仕掛けである。

今回のレジデンスにあたり、事前にインターネットで韓国のLGBTQの状況を調べた。釜山でQueer Culture Festivalと呼ばれるプライドパレードが昨年から開催されていることを知り、興味を持った。記事を読むと、驚くべきことに、フェスティバルに反対する団体が大規模に妨害を行ったとのことだった。宗教的理由から反同性愛を訴える大勢の人々が、プラカードを持ち抗議する写真が印象的だった。

フェスティバルの参加者と反対派、彼らと“家族写真”が撮れないだろうかと考えた。一見家族や友人に見えるが、実際には理解しあうことが困難な人々。

たとえ本当の家族や友人であっても、互いを完全に理解することは不可能だ。しかし我々は社会の一員として、他人と共生せざるを得ない。そのようなことを、この写真で可視化できればと思っていた。無論、危険が伴うであろうことや実現しない可能性も承知していたが。

結論から言うと、このプロジェクトは失敗に終わった。反対派の団体と連絡をと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である。ホンティアートセンターの 정나영 氏がジャーナリストを通して彼らとの接触を試みてくださったのだが、ジャーナリストからは最後までいい返事はもらえなかった。しかし、조혜림氏と정나영氏が、Queer Culture Festival の主催者たちに会う機会を設けてくださり、互いの情報交換を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実に有意義だった。彼らは会ったばかりの私に心を開き、様々なことを話してくれた。韓国のプライドパレードの状況、昨年のフェスティバルについて、反対派や、周囲の人々との関係など。性的少数者であることが原因で家族との間に問題を抱えている当事者もいた。

メンバーの1人が、所属する大学のLGBTQサークルのステッカーをくれた。それはLGBTQを象徴する6色の虹と、剣と盾がデザインされたものだった。この虹の本質は、やはり闘いなのだと感じた。レインボーフラッグが世界中に広まり、そして消滅するまで、まだまだ時間がかかりそうだ。

釜山での滞在は9月末までの予定だったが、10月6日にQueer Culture Festival 行われるとのことで、特別にホンティアートセンターで延泊させて頂いた。釜山のLGBTQや、反対運動の様子を見たかったのだが、大型の台風でフェスティバルは延期になり、結局参加することは叶わなかった。来年は是非、個人的に訪れようと思う。

ホンティアートセンターの、私が滞在した部屋とスタジオの前には、니시지마と書いてあった。日本語、特に平仮名の自分の名前が女性的で好きになれないのだが、読めない言語のそれは、すんなりと受け入れられる気がした。今年金沢で開催した個展で、“Mr. & Ms. Pictogram” という作品を発表した。ギャラリーの壁に、主にトイレに用いられている男性と女性を表すピクトグラムを描き、その輪郭を来場者に外側へなぞってってもらうというものだ。記号の意味はだんだんと曖昧になり、最終的には大きな線の集合体になった。これを自分の名前で、自分自身の手で行えないかと思い立ち、壁に紙を貼り、나츠미と書いた。近所の文房具店で購入したマーカーでそれをなぞっていき、線同士が複雑に交差しあい、これ以上描くことが不可能という時点まで続けた。ピクトグラムの作品と基本的な手法は同じ

だが、今回のドローイングは記号の持つ意味を抽象化しつつ、同時に拡張している印象もあった。拡張しつつ、インクが尽きて消えていく。私自身を表す記号との対話は、自分を客体化していくプロセスのようだった。

展覧会を開催するには至らなかったが、オープンスタジオの機会を頂き、過去作や釜山での作品について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行った。ご意見やご感想を頂戴し、大変貴重な機会となった。

滞在中には釜山と光州、二つのビエンナーレを観ることができた。どちらもテーマは非常に政治的で、日本の社会やアートシーンとの差をはっきりと感じた。具体的な社会問題を扱った作品が多く、芸術の範疇とは何なのだろうかと考えさせられた。

光州へは釜山文化財団の方々と、釜山にレジデンス中の各国の作家達と同行した。このようなツアーを設けていただき、大変感謝している。作家同士の交流もでき、有意義な旅になった。光州はメディアアート創意都市ということで、インタラクティブな映像作品やホログラムなどの体験もさせて頂いた。

また、Totatogaについて興味深い記事を読み、職員の方々に中央洞へ連れて行って頂いた。大勢の作家達が住居とスタジオ、展覧会場を確保し、地域の活性化に繋げているとのことだった。この規模で作家を支える仕組みは世界中を探してもなかなかないだろう。釜山広域市のアートへの注力は素晴らしいものだ。残念ながら、ビエンナーレの時期ということもあり、現地で展覧会は行われていなかったが、滞在中の作家達のスタジオを案内して頂いた。多様なジャンルの作家がおり、スタジオはそれぞれ快適そうだった。

F1963の展覧会のオープニングにて、出展中の作家であり翌月に金沢へ滞在する엄정원과出会った。その後何度か話すうち、互いの作品に共通点があることに気づき、彼女の金沢での滞在中に共同制作をしよ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私の記号の輪郭をなぞるドローイングと、彼女の動画撮影・編集とでコラボレーションをするという、お互いにとって初めての企画であった。金沢での彼女の個展の初日にパフォーマンス及びそのライブ配信を行った。

私がひたすらドローイングをし、その様子を私の胸元のカメラで配信。彼女は複数台のカメラとPCを用いて撮影、編集、配信、会場の壁にプロジェクションをした。互いの動作、映像、絵、音、鑑賞者がそれぞれ作用し合い、個人の作品ではできない不思議な空間を形成していた。会場である問屋まちスタジオへは、金沢で彼女と知り合った人々、地域の人やアーティスト達が訪れ、思い思いに楽しんでいただいていたようだった。同じプログラムで釜山と金沢に滞在した我々が共同で作品を作ることができ、大変刺激的であった。

今回私を受け入れてくださった方々は非常に親切で、全力でサポートして頂き大変有難かった。釜山文化財団、ホンティアートセンターの皆様にも、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ます。また私の性自認についても受け入れて頂き、快適に過ごせるよう御配慮を賜ったことにも併せて御礼申し上げます。



我把我自己的性别观和周边人对这个问题的看法反映到了我的作品当中。我出生时性别为女，但自我认知的性别却是男性和女性之间的。我试图表现出性别与性别以外的诸多事项的模糊性，说明人类诸多固定观念的类别。

去年，我在照相馆拍了几张“全家福”。

“振袖照”是将父母和奶奶请到照相馆，穿着振袖模仿六年前没有参加的成人式*照的相片。那时候父母已经离婚，我们在户口上也不再是一家人了，我也不是20岁，穿着女子服装。处处透着异样，但是装在一个相框里还是有一定程度的说服力的。

同时，作品还一同展示了我和父亲，奶奶，母亲之间的对话内容。

(*成人式：聚集20周岁的人，给他们鼓励和祝福的活动。女性主要穿一种名为振袖的日本传统和服。)

下面是跟以前的家庭成员一起照的相，看起来还是一家人。因此我邀请家庭成员以外的熟人来假装一个家庭，和他们在照相馆照了全家福。他们之间是互相不认识的（有的人连我都是第一次见）。参观者发现每个照片里都有我，并且认为这一家子都很相似，这就是这部作品的目的。

关于这次的艺术家庄留项目，我提前在网上搜索了关于韩国LGBTQ的情况。获悉，从去年开始在釜山举行了叫Queer Culture Festival的同性恋游行，对此产生了兴趣。让我吃惊的是，在游行途中反对团体大规模妨碍游行这件事。因宗教上的差异，喊着反同性恋的口号的人举着标语横幅抗议的照片让人印象深刻。

我想能不能让游行的参与者和反对者们一起照“全家福”呢？他们在表面上看起来很像朋友或一家人，但实际上是很难相互理解的一群人。

即使真的是朋友关系或一家人，彼此也不可能完全理解对方。但是作为社会中的一员又不得不在同一片天空下生活。我想把这些内容可视化，用照片表达出来。我也知道过程或许会伴着一定的危险，也有可能这种想法根本就无法实现。

从结论来看，这个项目失败了。

因为根本没有联系到反对团体。Hongti Art Center的 Jeong Nayeong试图通过记者为我牵线搭桥，但从记者那边我始终没有得到满意的答复。

期间Jo Hyerim和Jeong Nayeong为我引荐了Queer Culture Festival的主办方，这对我有很大帮助。面对认识没多久的我，主办方的朋友们讲了很多事情。韩国同性恋游行的举办状况，去年游行中反对团体和周围人群的关系等等。其中还有一位当事人是性少数者，家人知道后出现了种种矛盾。

主办方的朋友送给我一个他所属大学LGBTQ社团的贴纸，那是印有象征LGBTQ的六色彩虹和剑、盾牌的贴纸。我觉得这彩虹的本质就是斗争。彩虹旗扩散到全世界，直到消失还需要走很长的一段路。

原打算在釜山留到9月末，听说10月6日举办Queer Culture Festival，Hongti Art Center就特别为我延长了滞留时间。虽然很想看釜山的LGBTQ和反对运动，但是因为大型台风的原因，最终还是没能参加。明年我想自己再来参加。

Hongti Art Center里我将要滞留的房间和个人工作室门前都用韩国语写了‘니시지마 나츠미’。我不大喜欢用日语，特别是用平假名写我自己的名字，太女性化了。但是用我不知道的语言写出来的名字还是很容易接受的。

今年在金泽市个人展我发表了“Mr. & Ms. Pictogram”这个作品。在画廊墙壁上画上主要用于洗手间表示男性和女性的图形标识，然后让参观者按其轮廓在外侧描画。画着画着，符号所代表的意义慢慢变得模糊，到最后就成了大大的线的集合体。



突然想到我自己能不能用自己的名字来画一遍呢？于是就在墙壁上贴了张纸，写上了韩文‘나츠미’。接着用在附近文具店购买的马克笔按照轮廓画上去，线与线繁复交叉，画到不能再画的程度才结束。在技法上跟前面的作品一样，但这次作品给人一种把符号的意义抽象化和延伸化的感觉。随着延伸的过程，墨水也逐渐见底了。跟代表自己的符号对话，就像是在客体化自我。

虽然没有开办展览会，但借住open studio的机会对我过去的作品和在釜山时创作的作品进行了介绍会。这是能听到大家意见和感想的宝贵机会。

滞留期间参加了釜山和光州的双年展。展会主题的政治性都比较浓，这跟日本社会和艺术场有很大的不同。大部分作品的主题都是具体的社会问题，这让我再一次思考起艺术的范畴问题。

光州双年展是和釜山文化财团有关人员同行，釜山双年展是跟驻留艺术家们同行。我非常感谢给我提供这次机会的各位朋友。驻留艺术家之间的交流也让我受益匪浅。

光州是媒体艺术创意都市，在这里我体验了交互影像装置作品和全息作品。

接触到了关于Totatoga的有趣报到，因此和Hongti Art Center职员一起前往中央洞。各个住宅区，工作室，展览会都能看到很多艺术家的身影，这让这个城市更加鲜活起来了。釜山广域市对艺术如此规模的赞助很是让人赞叹。

开办双展会期间当地不举行其他展览会，所以我被介绍到其他驻留艺术家的工作室。不同流派的艺术家在各自的工作室里进行着轻松愉快的创作。

在这里我碰到了即将在F1963展会开幕式展示作品的Eom Jeongwon，她将要下个月到金泽市滞留一段时日。之后的几次谈话中我们互相发现各自的作品是有共同点的。因此在金泽滞留期间共同制作了一部作品。我按照符号的轮廓描画，她拍摄剪辑视频来协助我。这种合作我们都是第一次做。在金泽市，她个人展的第一天进行了表演和直播。挂在胸前的相机如实地记录着我画画的场景。她用多台摄像机和电脑拍摄、编辑，并在展示厅墙面设置的投影电视上播放。彼此的动作，影像，图画，声音与观赏者的相互作用形成了在个人作品中不能体现到的神秘空间。

展会期间她在金泽市认识的朋友，当地居民和艺术家都前来洞屋町工作室分享了我们的作品。在釜山和金泽市滞留的我们，因为同一个项目合作完成一部作品让我感到很刺激。

这次接受和认同我的人对我非常亲切，都尽全力帮助了我。真诚地感谢釜山文化财团和Hongti Art Center的各位。再次感谢大家能接受我的性取向，让我在这里能够一直保持轻松愉快的心情。

카네야스 히로시

KANEYASU HIROSHI

Busan , KOREA

2018. 10. 2. ~ 31.

Solo Exhibition

- 2017 “触彩の連想” / Japsel Contemporary / (Takadanobaba, Tokyo)
“FARO * DE ART vol 2” / FARO Aoyama / (Minami Aoyama, Tokyo)

Group Exhibition and Curated Exhibition

- 2018 “ARTPOINT Selection III” / Gallery ARTPOINT / (Ginza, Tokyo)
“鍛冶町倉庫(仮)” / Kanazawa kajimachisouko / (Kanazawa , Ishikawa)
“SCOPES” / Shiinoki Cultural complex / (Kanazawa , Ishikawa)
- 2017 “生新の時2017” / Wajima lacquer art museum / (Wajima, Ishikawa)
“Aizumachanaka Art Project 2017 Aizu” Lacquer art festival / Matsumoto
family store / (Aizu, Fukushima)
- 2016 “SICF 17” / spiral hole (spiral 3 F) / (Omotesando, Tokyo)
- 2015 “KOUGEI°C” /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 (Kanazawa , Ishikawa)
...Other group exhibitions Kanazawa ARTGUMMI (Ishikawa)

카네야스 히로시 KANEYASU HIROSHI



저는 부산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2018년 10월, 한국 부산에 1개월 동안 체재했습니다. 체재 시설은 홍티 아트센터라는 장소였습니다. 공업 지대 한가운데 위치하고 바다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Hongti는 주로 설치 미술을 주제로 하는 시설로, 천장이 넓은 전시실도 있고 개별 스튜디오도 충분한 넓이였습니다. 체재 작가에게는 개인실이 주어지고, 공용 부엌과 샤워실도 있어서 간이생활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점은 불편했지만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름다운 바다가 보인다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1개월의 체제는 현지에서 조사해서 작품을 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통 설치 미술 같은 아트워크를 하지 않습니다. 옷을 사용하지 않고 홍티아트센터에서밖에 할 수 없는 특별한 작업을 해야만 하는지 고민했었으나, 가능한 한 옷 작업을 고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의 옷 공예 문화가 지금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문화 교류라는 의미에서도 저는 옷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부산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작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석고에 옷을 스며들게 하는 초기 단계



옷 도구 주걱과 옷칠하는 데 쓰는 솔

저는 조형을 통해 옷의 유기적인 본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작에서는 철망과 석고를 원형 재료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석고는 표층에 물을 뿌리고 경화시켜, 원형에 옷을 스며들게 합니다. 그 후 기초 작업으로 페이스트 상태의 옷을 칠하고, 닦아서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것을 통해 점차 매끄러운 표층이 완성됩니다. 원래는 무기질이었던 석고가 점점 유기적인 표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 작업의 본질입니다. 철망의 경우에도 같은 작업을 합니다.

색도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촉각적인 색 표현을 모색하고 있어, 작품 표면은 겹겹이 겹쳐진 옷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색이 연마를 통해 표현됩니다. 이번에는 부산 바다의 이미지에서 영향을 받으며 유기적인 색채의 이미지를 탐구했습니다. 사포와 화학제를 연마에 사용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손으로 연마하여 광택을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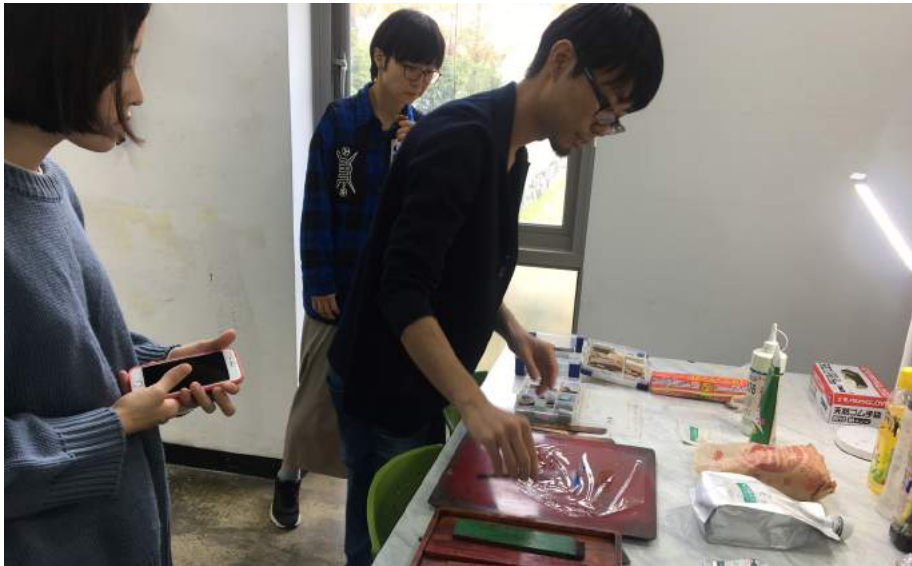
옷 작품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보통 제 작품에는 최소 2~3개월의 시간을 들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레지던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완성된 옷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특별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도 저는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그 문화를 접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티아트센터는 바다가 가까워, 매일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대포의 일몰은 좋은 추억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私は釜山文化財団の協力を得て、2018年10月に韓国の釜山に1ヶ月滞在しました。滞在施設はHongti Art Center という場所でした。工業地帯の真ん中に位置し、海がすぐそばにありました。

Hongti は主にインスタレーションを主体にした施設で、広い天井の展示室もあり、個別のスタジオも十分な大きさがありました。滞作家には個室が与えられ、共用のキッチンやシャワールームもあり、簡易的な生活には問題がなかったです。都市から離れているのは不便でしたが、制作に専念できる環境でもありました。また、毎日のように美しい海が見えるという利点もありました。

滞在は一ヶ月ということで、現地で調査を通じて作品を制作するには十分な時間がありませんでした。私は通常、インスタレーションのようなアートワークを作っていません。漆を用いず、Hongti でしかできない特別なことをするべきかどうか悩みましたが、私はできる限り漆の仕事に固執することに決めました。この背景として、韓国の漆工芸の文化が今やなくなりつつあることがあります。文化交流の意味でも、私は漆の作品を作ることが重要だと考えました。また、特別なことをしなくても、釜山での生活すること自体が自然と仕事に影響を与えたと考えたからです。

私は造形を通して漆の有機的な本質を探求しています。今回の制作では金網と石膏を原型材料として使用して作品を制作しました。石膏は表層に水をかけることで硬化させ、その原型に漆に染み込ませます。その後は下地の作業として、ペースト状の漆を塗り、研いで滑らかにする作業を繰り返します。繰り返すことで徐々に滑らかな表層が出来上がってきます。もともと無機質だった石膏が徐々に有機的な表層を得ていくのです。この変容していく状態を作り出すことが私の仕事の本質です。金網の場合も同様の作業を行います。

色も私にとって重要な要素です。私は触覚的な色表現を模索しており、作品の表面は幾重にも重ねられた漆によって出来ています。これら作品では、その色が研磨を通して現れます。今回は釜山の海のイメージの影響を受けながら、有機的な色彩のイメージを探求しました。研磨はサンドペーパーとコンパウンドを使用しますが、最終的には手で研磨することで艶を出します。漆の作品には時間がかかります。私は普段自分の作品には最低2～3ヶ月の時間をかけます。時間の足りない中で、レジデンスならではの特別な作品というよりは、できる限り仕上げられた漆の作品を作ろうと心がけましたしかし、前にも触れましたが、なにか特別な形態をとらずとも、私は韓国に1ヶ月滞在し、その文化に触れることで、目に見えない影響を多く受けましたし、その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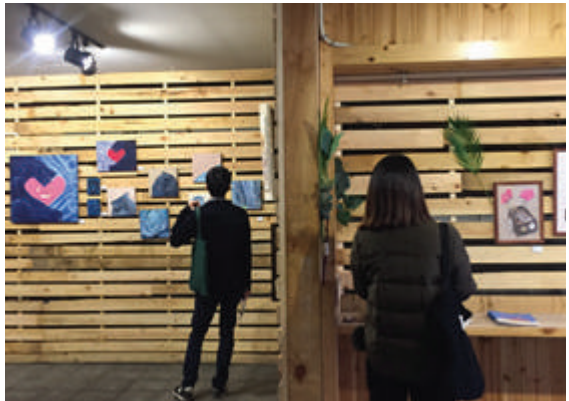


Hongti Art Center は海に近く、毎日美しい景色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タデポの日没は私の良い思い出として心に焼き付いています。Hongti の施設の皆さんや、釜山文化財団の皆さん、そして一緒に居住していたアーティストの方々には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8年10月，我得到了釜山文化财团的赞助，在韩国釜山驻留了一个月。我驻留的地方叫HongtiArt Center，位于工业区中心地带，视野内还可以看到大海。Hongti的设计以装置艺术为主，展示厅的天花板很宽阔，个人工作室的空间也非常宽敞。财团给每位艺术家分配了一间个人工作室，厨房和浴室是公用的。这样，基本生活起居算是没有问题了。虽然离城市远这一点稍微不方便，但是能够让我心无旁骛地创作作品。而且还可以每天欣赏美丽的海景。

在当地取景并创作作品，一个月的时间其实并不充分。我一般是不做装置艺术的。我曾想过我非要做出一个不用漆，只能在Hongti里做的那种特殊的创作吗？我觉得并不用，我还是坚持用漆来创作这次的作品。近来韩国漆工艺的衰退是其中一个原因，另一个层面上，我想漆工艺作品的创作在文化交流方面也是非常重要的。即便没有特殊的制作过程，我相信在釜山生活的点点滴滴也能自然而然地融进我的创作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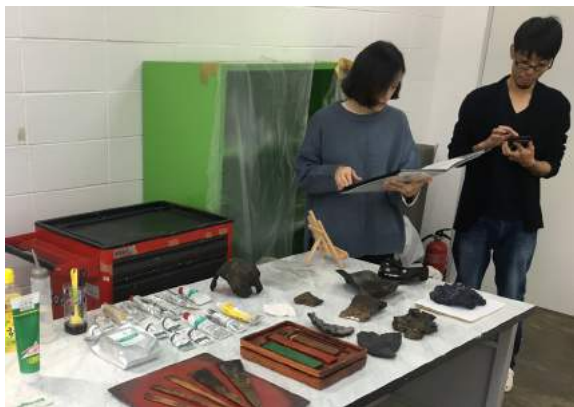
我是通过造型探究漆的有机本质。做原型的材料是用铁丝网和石膏。在石膏表层喷水进行硬化处理，再让漆渗透其中。接着刷浆糊状漆，把表面做得平滑。这个操作要反复进行，以至确保塑像表层的光滑。这种把无机质石膏的表层逐渐转变为有机表层的作业就是我创作方法的本质。铁丝网原型也是用相同的方法。

色彩对我来说也是一个重要因素。我追求色彩的触觉，因此作品表面就由层层叠叠的漆构成。它的颜色是通过打磨呈现出来的。这次的作品接收到釜山大海的因素从中摸索出有机的色彩意象。用砂纸、复合油等材料打磨之外，最后用手来打磨出光泽。

漆工艺制作过程需要时间。要完成一个作品，我一般至少需要2~3个月。在时间不足的情况下，与其说这是有人提供专业的创作环境才能完成的特殊作品，不如说在限定时间内尽可能完成的最好的漆作品。

前面也提到过，即使没有做什么让人惊叹的特殊创作，我在韩居住的这一个月里，亲身体验并吸收了用眼看不到的韩国文化，这让我很高兴。

Hongti Art Center是离海边非常近的，每天都可以享受看美景的乐趣。多大浦的日落也在我心中留下了可追忆的美好印象。感谢Hongti和釜山文化财团的各位以及共同居住在一起的艺术朋友们，谢谢！





商场B1层



Section 3

교류후기

Review



《4명의 부산 작가와의 교류》

9월21일, 하얼빈사범대학교 예술학원에서 사범대선생님들과 함께 한국 화가 네 분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를 통하여 다양하고 심오한 사상을 배우게 되었다. 교류내용 중에서도 예술가는 사회로부터 피드백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삶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이 제일 뇌리에 남았다. 그들은 개인의 삶을 희생하여 놀랍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이 있는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것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한 시간과 생활, 세월을 대가로 후세에 길이 남을 심오한 내용의 예술작품을 탄생시켰다. 그들 작품의 심오함은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작품들은 생명, 피, 땀으로 바뀌 온 시대성과 현대성을 대표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좌담회에서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최석운 작가님의 작품과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었다. 작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한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작품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스꽝스럽고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인 작품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세 살짜리 딸을 그린 작품이었다. 나는 이 작품에 깊이 감동받았다. 여자 아이는 작지만 작가 본인을 무척이나 닮은 것 같았다. 어린아이는 그 또래가 갖고 있는 순진함과 천진난만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어린아이의 얼굴에 슬픔이 반영되어 있다. 작품 속 아이의 얼굴은 천진난만함을 잃어 있었고, 그의 붓 끝에서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반영되어 그려졌다. 그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이러한 정서 표현은 화가 내면의 반응이며, 여자 아이의 감정은 사회 전체가 대자본 경제사회를 반복하는 따분한 형태에 대한 정서의 반영이다.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에 대한 동경은 그의 붓 끝의 아이의 표정에서 삶의 무게로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얼마

나 여리고 허망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얻게 하였다. 동시에 그는 어린 아이가 노인의 따듯한 등에 업혀 위안을 얻으며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랐다. 이 작은 생명은 그의 피이자 살이고 그의 망연한 마음을 다시금 건강하게 성장시킨다.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건 화가의 내면의 고백이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작품의 소재로 삼아,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삶에서 창작의 소재를 얻고, 또한 삶을 투영하여 그의 모순된 내면세계의 반영과 사회에 대한 반항심리를 반영했다. 이 작품은 한 화가의 삶의 모습과 사회일 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도 이러한 소재를 사용한다. 같은 소재의 작품들도 비록 모두 삶의 정서를 표현하였지만, 최석운 작가의 붓끝에서 나온 작품은 특별한 인상이 깊고 눈물 나도록 감동적이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항상 움직이며, 이는 객관적인 자연현상이다. 송성진 작가의 작품은 자연주의 범주 내에서 창조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는 자신의 주관적인 마인드로 자연주의의 객관적인 진실된 묘사를 깨버리고, 자연과 관객을 사이로 유기적인 연결을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품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 자연주의가 지나치게 객관적 진실로 비추어지게 장치함으로, 그의 작품은 인간의 주체성과 사회적 배경, 정치와 인류의 운행체제 포기, 인간의 본성과 감정 사이의 미묘한 심리변화로 인간의 본질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의 약점도 같이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주관은 사람의 내면묘사와 개성을 지나치게 중요시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형태를 작품에 강요하면 독특한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감상습관도 강요하게 된다. 이 두가지 형태의 약점은 모두 송성진 작가의 작품창작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의 작품은 비과학적이지 비자연적인 형태에서 만들어졌다. 그의 작품영상 감상 중, 10분의 짧았던 시간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작품은 오늘날의 사회현상을 직접적

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건물의 재건축에서 사람으로, 또 마음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연의 형태와 사회형태에 따라 이동하였고, 썰물과 밀물은 객관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현상 중의 썰물과 밀물은 그가지은 통나무집이 그의 초석을 떠나 멀리 표류하게 하다가 또 다시 원래의 기지로 돌아와 다시 든든하게 지어져 근원을 만들었다. 이러한 썰물과 밀물의 자연현상은 역사사건의 발생과도 같이 자연의 비가역성을 증명하였다. 우리는 이런 변화발전개혁의 사회 중 일원으로, 마음도, 집도 움직인다. 이는 사회발전 중 사람마다 거치는 과정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으로 만든 작품으로 신성한 국가기금으로 모방할 수 없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걸작을 창작하였다. 그는 오늘 날 사회의 진정한 현상을 표현해 냈다. 이런 진실한 현상과 화가의 내면은 문학작품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작품은 그의 심오한 생각을 표현하였고, 우리는 그의 용기에 감탄하였다. 오늘 날 이익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학술에 대한 열심과 마음 깊은 곳의 발굴은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의 정신수양을 배우게 되었다.

변대용 작가의 지극히 만화적인 북극곰의 지극히 천진난만한 모습에서 화가가 주입한 정신세계를 보게 되었다. 밝은 외관의 북극곰은 단색의 공간에 묻혀있지만, 이 동물과 단색의 대비는 극도의 지향성을 가짐으로써 공간내의 특별한 표현방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변대용 작가의 작품 중 도자기재질의 약한 광택은 창조한 예술형상 중 '인형화'로 풍자감과 입체감을 증가시켰다. 이런 처리기법은 예술체계의 희극성과 유머감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수양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고 그의 독특한 '개성화'에 예술태그를 만들어 주었다.

작품들은 새시대의 수요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해학적이고 오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주의 풍파 속에

서 중국예술문화사회의 내면에도 부합되어, 그의 작품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와 문화수양을 깨달았다.

조정현 작가는 제일 젊은 예술가이다. 그의 작품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다. 조정현작가의 작품은 바코드 태그설계부터 장치공간, 가상과 시공간으로의 전환으로 개념적인 펌프식 전환을 형성하였다. 그는 장치예술이 지닌 '비 예측성', '일시성' 특징에 더 깊은 탐색을 가하여, 장치의 미래에 더 많은 창의적 영감과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전 설정 모드화 설계의 작용을 깨고 기본적으로 작품의 핵심생명력만을 연장시켰다. 이는 오늘 날의 시공간적인 교차변화를 더 잘 반영하였고 자연형태전환특성이론상의 분석에 중요한 긍정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위 네 작가의 작품을 종합하여 보고, 예술가의 근사한 설명도 들은 후, 나는 나도 모르게 중국의 상황을 떠올리고 비교하게 되었다. 우선 나는 네 예술가들의 이러한 예술 헌신정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술 창작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이런 삶의 압력 하에 정진하는 열정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정신의 부족함은 예술가의 치명적 요해이자 예술의 방향과 헌신정신을 훼손하고 예술봉사의 진리를 끝낸다고 생각한다. 또한, 네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나서 내가 겪었던 상황들 속의 예술 종사자들과 비교하면, 내가 본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어쩌면 상인이라고 함이 더 맞을 것 같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끊임없는 끈기와 피 끓는 열정. 그리고 예술을 탐구하고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는' 헌신정신이다.

췌앤우송(QUAN, WU SONG)_ 흑룡강대학교 교수

《与釜山四位画家交流》

9月21日，我们在哈尔滨师范大学艺术学院与师大老师和韩国四位画家进行座谈，通过这一次座谈会让我们学到了很多深刻的思想内容。

交流中，让我记忆最深刻的一个内容就是艺术家不是为了得到社会的反馈和回报，而是用他的一种生存意识告诫人们一个概念就是生命的价值。他们义无反顾的以他个人的生活为代价做出了不可思议的、有生命的艺术作品，这绝不是我们概念当中的油盐酱醋和热炕头而已。他们静静地用时间和他们不断增长的年岁，付出了代价，付出了应有的享受和生活，换取的是有深刻思想内容的艺术作品，流芳百世。我觉着他们的作品其深刻思想是用言语无法叙述的。这些作品是用生命的和血的代价换取的有时代性、是当代性的有代表性的好作品。

在座谈当中，首先看到的是崔锡云的作品以及他的作品叙述。作品贴合生活经历，按不同时间分几部分创作出的真是生活。其中有张作品觉着最让我啼笑皆非的又催人泪下的作品，这张作品画的是他三岁的女儿。我对这张作品有着深刻的印象。女儿虽小，但看起来很像画家本人。年岁很小的孩子，应该带着她应有的幼稚与天真。他的作品中反应的却是忧愁和巨童般的面容。孩子的幼稚面容在作品中却失去了幼色，在他的笔下刻画出了对生活的优柔和磨愁。他对生活的这种情绪的表达是画家自身内心世界的一种反应，更严重的说，她代表了社会的群体对大资本经济社会反复无常的形态抱有情绪。他内心的浪漫天真的憧憬，在他笔下的孩子表情中反应出一种生活的压力。通过这张作品让观者得到信息就是，一个人作为社会中的一个单元，多么的脆弱且无望。同时他还更希望幼小的童儿在老人的后背温暖下得到安慰并且能幸福的生活成长。这种幼小的生命是他的血脉传承，是他身上的小鲜肉，

让他散去茫然的内心健康的成长起来，这是对孩子抱有希望的画家内心世界的希望和苦诉的表白。他把自己的孩子作为一个很好的题材，反复的创作了许多作品。在生活当中得到了创作题材，又借助了生活的原型，这不仅反应了他矛盾的内心世界，又反应了对社会的一种反抗心态。这套作品不仅仅是一个画家的生活社会的题材，很多画家也利用了这种题材，虽然反应的是同样的生活中的情节，但通过崔先生的笔下创作的作品给人的印象极为深刻催人泪下。

世界上所有的物质都是在移动当中，这是一种客观的自然现象。宋晟津 的作品应该是自然主义范畴之内的创作形式，但他用自身的主观思想突破了自然主义的客观真实描写，是自然与客观之间的有机联系，并让观者在他的作品当中得到了领悟与感想。自然主义过于倾向于客观的真实，他失去了人的主观性，失去了他的社会背景，背弃政治和人类的运行体制，背弃了人性和情感之间的微妙的心里变化，使得人性的主观处于负面，带来了他的弱性。主观是过于注重人的内心描写和个性的张扬，以个人的主观形态强加于作品，以独特的方式，强加于接受者的观赏习惯。两种形态的弱点都不利于宋晟津的作品的产生。他的作品既在非科学、又在非自然的形态当中产生的。我在观赏他的作品视频时，十分钟的茫然之后，让我恍然大悟。作品直接揭穿当今社会的现象，从建房屋到人，到心，都在移动当中。按照自然的形态和社会形态漂移着，潮涨潮落是自然客观不可抵挡的自然现象。现象中的潮涨潮落导致了他所建的木屋脱开他的基石漂移远方，又拖回原有的根基地，重新牢固。做了有根基的原点。这样潮涨潮落的自然现象如同历史事件的发生，证实了自然的不可逆转性。我们现在就像正处

在这个变换发展改革的社会其中的一个分子·心在移动·房屋也在移动·这是社会发展当中人人必然经历的过程·他把这种现象作为一个作品申请到的国家资金创作了一个无可模仿的好作品·是非拟永恒的好作品·他启示了当今社会的真实现象·这种真实的现象和作家的内心·是用文学作品无法表述的·作品阐述了他深邃的思想·让我们佩服他的这种勇气·我们在当今利益在前的社会当中·对于学术的轻视和思想深处的挖掘方面·形成了强烈的对比·看完视频以后让我们感觉到一种愧疚·从中我们学到了他的精神·和他的内涵·

卞大龙极为卡通式的北极熊的极为憨态的动物身上看到了作家注入的精神·光亮的外表北极熊的身上都嵌入单色的空间当中·然而这种物种与单色用色的反差极具指向性·从而形成了一种空间内的特殊表现方式·此外·在卞大龙的绘画语言中·陶瓷材质所呈现略带光泽性的处理效果也增强了所创作的艺术形象中“玩偶化”的讽刺感与立体度·这种处理手法不仅增强了艺术体系中的喜剧性与幽默感·还成为其艺术家深化其作品内涵的手段·也造就了他自己独特的“个性化”艺术标签·

我觉着作品不仅符合新时代的需要·其作品不仅幽默诙谐·具有娱乐性的特质·并且符合了消费主义浪潮下中国艺术文化社会的内在属性·使他的作品具有深层次的社会与文化内涵·

赵正贤是最年轻的艺术家的作品让全场的人极为赞佩·正贤装置作品是从条码标签的设计转换为装置空间·虚拟以及时空等观念上形成了跳跃式转变·他从装置艺术所具有的“非预判性”、“暂时性”特质中寄寓了更深层的探索·在能为装置的未来带来更多的创意

灵感和启迪同时·打破了预设模式化设计的作用·根本上延续了作品的核心生命力·这在当今的时代背景下·更体现出了当今时空交错变化·自然形态转换特征理论上的分析起到了重要的积极意义·

综合上述的四位画家的作品·再听了艺术家的精彩叙述·我不自觉的联想和较对了我们当今的国情·首先我对四位艺术家的这种为艺术奉献精神给予了肯定·相对于在我所知的从事艺术创作的人中缺少这种生活压力下迸发的热情·我觉着我们缺少这种精神·也是艺术家致命的是要害的问题·也会毁了为艺术的导向和献身的精神·了结了为艺术奉献的真谛·另一个观点是我观览了四位艺术家的作品后较对了我所处的氛围中的从事艺术的人·我想说的是所看到的所谓的“艺术家”的人·恰当的比喻是经商更为不过·

我们缺少的是恒心坚持·我们缺少的是一腔热血·我们缺少的是艺术的探索·我们缺少的是“顾不上其他”的奉献精神·

我感谢大家把我写的感文读完·也建议大家读后提出问题·也期待我们为一个话题共同的研究问题的出处·我想这个“艺术家”的话题会带来无限大益处·

黑龙江大学教授 权伍松

《釜山の画家4人との交流》

9月21日、私たちはハルビン師範大学校芸術学院で師範大学の先生たちと韓国の画家4人と共に座談会を行った。今回の座談会で、私たちは数多くの奥深い思想を学ぶことができた。交流の内容の中で、芸術家は社会のフィードバックと報いだけではなく、自分の生存意識を人々に知らせることが命の価値ということが一番印象に残った。

彼らは個人の生を犠牲にして驚くべきほど生命力ある芸術作品を作った。これは決して私たちが思う日常的なことや、安逸さではない。彼らは黙々と時間と共に年を取るのを当前のように受け入れる幸せと生活を報いに、後に残る奥深い内容の芸術作品を誕生させた。彼らの作品の奥深い意味は言葉では言い表わすことができない。この作品は命の血・汗に変えてきた時代性と現代性を体現する素晴らしい作品である。

座談会で一番最初に見たのは画家チェ・ソクウンさんの作品と彼の作品に対する解釈だ。

画家は生に密着し、互いに異なる時間帯にわたって、色々な部分に分け本当の生を作り出した。その中で泣くことも笑うこともできない、涙が出そうなくらい感動的な作品があった。それは彼の3歳の娘を描いた作品である。私はこの作品に強い印象を受けた。娘は小さいが、画家本人ととても似ているようだった。幼い子供は子供らしい未熟さと無邪気さがある。しかし、彼の作品では心配事がある大きくなった子供の顔であった。子供の無邪気な顔は作品の中でその無邪気さをなくし、彼の筆先から生に対する心配が描かれた。彼の生に対するこのような情緒の表現は画家の内面の反応であり、さらには、娘は社会全体が大資本の経済社会で続く退屈な形に対しての情緒の反映である。彼の内面の浪漫へのあこがれは彼の筆先で子供の表情での命の重さとして表れている。この作品は見る人に対して、一人の人間が社会の一員としてどれだけ弱く空しいかというメッセージを投げかけている。同時

に彼は幼い子供が老人の暖かい背中に抱かれて安らぎを得て幸せに成長するよう願っている。この小さな命は彼の血であり、肌であり、彼の茫然とした心が健康に成長させる。これは子供に希望を持った画家の内面世界の希望を説くものでもある。彼は自分の子供を作品の題材にして、数多くの作品を創作した。生き方を創作の素材を得て、また、生のありのままの姿を借りたのは彼の矛盾した内面世界の反映であり、社会への反抗心理でもある。この作品は一人の画家の生と社会の素材ではなく、他の画家たちもこのような素材を利用する。ただ、全て生の情緒を表したが、チェ先生の筆先から出てきた作品は特別に印象深く涙が出るほど感動的であった。

この世のすべての物体は常に移動していて、これは客観的な自然現象である。ソン・ソンジンさんの作品は自然主義の範囲にある創造形態や、彼自身の主観的なマインドで自然主義の客観的な真実の描写を破り、自然と客観の間の有機的な繋がり、見る人に対して作品の中で悟りを得るようにする。自然主義がひどく客観的な真実に傾き彼は人間の主観性を失い、彼の社会的な背景をも失い政治と人類の運行体制を捨て、人性と感性の間の微妙な心理変化も捨てることによって、人性の主観的な面が不定的に変わることによって彼の弱みもついてくるようになった。主観は人の内面描写と個性を重要視しすぎる。個人の主観的な形を作品に強制すれば、独特のやり方で見る人の鑑賞習慣も強制することになる。この二つの形の弱みは全てソン・ソンジンさんの作品創作に悪い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彼の作品は非科学的で非自然的な形から作られた。彼の作品映像を鑑賞する中で、10分の茫然の先に大きな悟りを得た。作品は今の社会現象を直接的に表した。建物の再建築から人に、また心に。すべては動いていた。自然の形と社会の形によって移動し、引き潮と満ち潮は客観的に抑えきれない自然現象

である。現状の中での引き潮と満ち潮は彼が立てた丸太小屋が彼の礎石につれ遠く漂流し、また再び元の基地へ戻り確かに建てることによって根源を作り出した。このような引き潮と満ち潮の自然現象は歴史事件の発生とともに自洗の非可逆性を証明した。私たちはこのような変化発展改革の社会の一員で、心も動かし、家屋も動かす。これは社会発展の中、全ての人が通過する過程である。彼はこのような現状で作った作品で表現した。国家資金ではまねできない、ほぼ永遠に近い傑作を創作した。彼は今の社会の本当の現状を表した。このような本当の現状と画家の内面は文学作品としては表現できないのだ。作品は彼の奥深い考え方を説明し、私たちは彼の勇氣に感心させられた。今の利益が優先される社会での学術に対する蔑視と心奥の発掘は強烈な対照を見せた。映像を見てから私たちは心のそこから機が咎めることを感じ、彼の精神と修養を学んだ。

ビョン・デヨンさんの作品では漫画的な北極熊の極めて無邪気な姿から画家が注入した精神世界を見るようになった。明るい外観の北極熊は単色の空間に埋もれているが、この動物と単色の対比は極度の指向性を持たせることで空間内の特別な表現方を作り出した。そして、ビョン・デヨンさんの絵画の中で陶器のほのかな光沢は創造した芸術形相の中で「人形化」の風刺感と立体感を増加させた。このような処理方は、芸術体系の喜劇性とユーモア感を増加させると同時に芸術家が自分の作品の修養を高める手段となって、彼独特の「個性化」芸術タグを作り出した。

作品は新しい時代のニーズに当てはまるだけでなく、ユーモラスで娯楽的な特性をもっており、消費主義の流れで中国芸術文化社会の内的な属性にも当てはまり、彼の作品に高いレベルの社会と文化修養をもたらすようになったと思われる。

ジョ・ジョンヒョンさんは一番若い芸術家だ。彼の作

品は現場にいるすべての人から絶賛を受けた。ジョ・ジョンヒョンさんは作品をバーコードタック設計から装置空間、仮想と時空間への転換で概念的なポンプ式転換を形成した。彼は装置芸術が持つ「非予測性」、「一時性」の特徴により深い探索を加え、装置の未来へもより多く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ときっかけを作ると同時に事前設定モード化設計の作業を破り、基本的に作品の核心生命力を延長させた。これは今日の視空間の交差変化をよく反映し、自然形態転換特性理論上の分析に重要で肯定的な疑問を投げかけた。

上の4人の画家の作品を総合し芸術家の説明を聞いた後、私は思わず中国の状況を思い出し、比べようになった。まず、私は4人の芸術家のこのような芸術的献身精神を肯定的にみている。私が知っている芸術創作に従事する人には、このような生き方の圧力下で精進する情熱が足りない。この精神の不足は芸術家にとって致命的であり、芸術の方向と献身精神を棄損し、芸術奉仕の真理を終結させると思う。また4人の芸術家の作品を見てから現在の芸術に従事する人々を比べると、私が見た「芸術家」は「商人」と言う方がよりふさわしいと思われる。

私たちに足りないのは終わりなき努力と燃える情熱、そして芸術家の探索と「何も見えない」献身精神である。

私のあとがきをお読み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質問等ございましたらお気軽にご連絡ください。私たちが一つのタイトルのためにともに問題を研究しようとする意味で、今回の「芸術家」のタイトルは無限の利益をもたらすことでしよう。

黒竜江大学校 教授 チェン・ウスン(QUAN, WU SONG)

발행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

편집기획: 김이선, 조혜림

디자인 및 제작: 윤정아